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4. 20.(목), 14:00 ~ 16: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정명섭, 박경식, 이강민, 이경미, 이찬희,
전봉희, 정정남, 최성은, 최장순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정비사업	공개
2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공개
3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	공개
4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탐방 안내소 건립(재심의)	공개
5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설선당 건립	공개
6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2동 건립	공개
7	무주 한풍루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공개

【검토사항】

8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9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대응전 건립 설계 재검토	공개
10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약사전) 건립 설계검토	공개

【보고사항】

11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물 철거 - 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 주변 가설건축물 축조(안전경비원 초소) - 영천 송렬당 주변정비공사 -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숲가꾸기 사업 -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숲가꾸기 사업 -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공사 관련 사무실, 합숙소 건립 -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탐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신원사 휴휴당(공양간) 건립, 화장실 철거 -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공유플랫폼 시설 외부마당 정비 	공개
----	---	----

- 영양 산혜리 오층모전석탑 주변 주거취약지구 개선사업(담장설치)
-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직지사 경내 수목정비(제거)
-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미륵전 진입로(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홍주암 진입로(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재해복구 사업
-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여주 천송~신남간 도로확포장공사(변경허가)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봉서암 휴휴당 건립
- 영암 성풍사지 삼층석탑 주변 영암 방아소하천 정비사업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2동 건립
-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6동 건립 및 진입로 조성
(변경허가)
-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
-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산림 간벌 및 오솔길 조성
-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템플스테이 체험상담관 및 담장 건립
-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
- 구례 연곡사 북 승탑 주변 상수도 관로 매설 및 가압장 신설(변경허가)
-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 공덕비 건립
-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성적당 건립
-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SK텔레콤 중계기 설치(변경허가)
- 강릉 경포대 주변 문화관광해설사집 신설
- 강릉향교 대성전 주변 문화관광해설사집 신설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04-001

1.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보물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정비사업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1, 365-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산37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200m 이상
 - 사업내용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정비사업(우회도로 개설)
 - 사업규모 : 폭 8m, 연장 460m, 교량2개소
 - 도로구분 : 농어촌도로 204호선

- 사업비 : 70억원(국비 : 50, 지방비 : 50)
- 사업기간 : 2022년 10월 ~ 2025년 12월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2.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용인시 소재 보물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립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46-23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51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립
 - 사업면적 : 990m²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197.25m² / 861.79m²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12.567m
 - 절토높이 : 10.71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3.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골프연습장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골프연습장 신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됨.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에서 건축하는 높이 10개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5길 11-10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930-7 외 15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200m

- 사업내용 : 골프연습장 건립
 - 대지면적 : 6,805.0m²
 - 건축/연면적 : 276.2m² / 878.14m²
 -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1동)
 - 건물높이 : 15.7m
 - 공작물(철탑)높이 : 36m
 - 층수/높이 : 지상3층, 지하1층
 - L형 옹벽 : 5.0 ~ 5.5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8명, 기권 1명

4.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탐방 안내소 건립(재심의)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보물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에 탐방 안내소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탐방 안내소 건립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2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3.03.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읍어면 유신리 산125-1
 - 지정일 : 1988. 04. 0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보성군 읍어면 유신리 533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2m
 - 사업내용 : 사찰 내 탐방 안내소 건립
 - 건축면적 : 123m²
 - 건축규모 : 정면 5칸, 측면 4칸, ‘ㄱ’자 구조
 - 건축양식 : 경량철골구조, 경량 철골트러스 지붕구조
 - 기단부 : 자연석 석축 위 콘크리트 기초

라. 현지조사의견('23.04.1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일월사 사역의 끝부분으로 현재 가설 컨테이너 매점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접하여 조립식 건물로 종무소가 자리 잡고 있음.
- 기존의 경관저해 건물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마애불과 가까운 거리인 점을 고려하여 규모를 축소 조정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규모를 축소하되, 건물 양식·형태 등 종합적으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5.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설선당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에 설선당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설선당 건립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번지
 - 지정일 : 1984. 11.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0m
 - 사업내용 : 설선당 건립
 - 사업비 : 6억원(지방비)
 - 건축면적 : 112.32㎡
 - 건축규모 : 정면 4칸, 측면 5칸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5량가, 팔작지붕
 - 최고높이 : 7.45m

- 석축 설치
 - 정면 : 길이 62m, 높이 1.6m
 - 배면 : 1단석축 길이 69.5m, 높이 1.8m / 2단석축 길이 51.7m, 높이 1.8m
- 담장 설치 : 길이 62m, 높이 1.8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8명, 부결 1명

6.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2동 건립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보물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주변에 템플스테이 2동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템플스테이 2동 건립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354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1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2동 건립
 - 대지면적 : 6,026㎡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158.85㎡
 - 최고높이 : 6.48m
 - 배수로 석축 : 길이 74m, 높이 1.5m
 - 한식 담장 설치 : 길이 65m, 높이 1.2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7. 무주 한풍루 주변 허용기준 제정(안)

가. 제안사항

전북 무주군 소재 보물 「무주 한풍루」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무주 한풍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3.01.09. ~ 2023.01.30.(23일))동안 2건의 의견이 있었음.
- ※ 의견 제출 현황
 - 제출일 : 2023.01.10.(화)
 - 제출인 및 제출의견
 - (1) ○○○(경남 진주시, 지역주민)
 - 무주 외곽지역으로 이전 후 문화재 지정하거나 이전 불가 시에는 보존지역을 500m에서 100m로 축소할 것을 건의
 - (2) ○○○(전북 무주군, 지역주민)
 - 고시안 2구역의 평지붕 최고높이 8m, 경사지붕 12m를 평지붕 최고높이 12m, 경사지붕 15m 이하로 변경요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무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무주 한풍루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93-2
- 지정일 : 2021. 06. 24.
- (3) 신청내용 : 「무주 한풍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붙임 참조)
- (4) 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라. 지방자치단체(무주군) 의견

- 2022년 8월에 허용기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나, 규제개선 목적의 허용기준 제도를 새로 생긴 규제라고 생각하여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로 기자설명회, 군의회 설명회,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추가 주민공청회를 통해 허용기준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진행함.
- 무주군에서는 현지 여건 등의 변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재 보호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허용기준(안)을 작성하였으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합리적이고 무주 한풍루의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무주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건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안) 1부.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무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p>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등),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p> <p>○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 함.</p> <p>○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 함.</p> <p>○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원위치 추정지역 등)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04-008

8.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강진군 소재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만덕리 246번지)
 - 지정일 : 1986. 02. 07.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康津 白蓮寺 大雄寶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만덕리 246번지)
 - 조성연대 : 조선후기(1762년 중수)
 - 수량 : 1동(98.31㎡)
 - 지정면적 : 98.31㎡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다포식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의견(2022.02.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불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2.08.	대상문화재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2월 2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신청종별 : 보물
2. 문화재명칭 :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3.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만덕리 246번지)
4. 연혁 :

강진 백련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만덕산 <백련사대법당중수기>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백련사는 신라말 문성왕(文成王: 839~857) 때 왕사 무염국사(無染國師)¹⁾에 창건되었는데, 도중에 황폐해져서 연대나 장소를 알 수 없었다가 고려시대 원묘국사 요세(圓妙國師 了世)²⁾에 의해 1211년(고려 熙宗 7)에 두 번째 창건되었고, 무외대사(無畏大師)³⁾에 의해 세 번째 창건되었으며, 진정국사(眞靜國師)⁴⁾에 의해 네 번째 창건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초에 왜구의 침탈로 만덕사(백련사)의 여러 불전이 훼손되자 당시 천태종의 대선사를 지낸 행호(行乎)와 제자들이 1430년(세종 12) 중창을 시작하여 1436년(세종 18)에 전각과 당우, 회랑, 요사 등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후 300여 년이 지나 1760년(영조 36) 2월 1일 밤에 큰불이 나서 백련사의 모든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당시 절의 스님인 왈찰(曰刹), 지정(智正), 혜철(惠哲), 태화(太和), 신징(愼澄), 규연(圭演), 찰연(察演), 규철(閏哲), 연징(蓮澄), 봉관(鵬寬) 등에 의해 다음 해인 1761년(영조 37) 4월 8일 대웅보전 등 여러 건물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1762년 4월 13일에 완성하게 되었다. 이때 현존하는 대부분 건물과 불상·불화·불교 공예들이 조성되었기에 백련사의 마지막 대중창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766년에는 시왕전(현 명부전), 1776년에는 나한전(현 응진전)이 중수되는 등 백련사 중창 불사들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만덕사(백련사)는 청허휴정(淸虛休靜)을 비롯하여 8 대사를 배출하였고, 이 중 연파혜장(蓮坡惠藏, 1772~1811)이 주석할 때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다산초당에서 유배살이하면서 백련사를 드나들며 차 문화를 이끌고 유불상교(儒佛相交)의 문화공간이 되었다.

<백련사대법당중수기>는 대웅보전의 중건 배경과 연도, 불사에 참여한 스님들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사료 가치가 있다. 이 현판의 앞 부분은 강진 출신의 학자 동강(桐岡) 이의경(李毅敬, 1704~1778)이 을유년(1765년, 영조 41)에 지은 글로 뒷부분은 대시주질(大施

1) 무염(?~888)은 신라의 입당 유학승으로 13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해 범성선사(法性禪師)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선사의 유학 권유로 도량(道亮)과 함께 견당선(遣唐船)에 올랐다. 종남산(終南山) 불광사(佛光寺)에서 여만선사(如滿禪師)의 문하에 있다가, 포주(蒲州, 산시성)에 가서 보철(寶澈)스님에게서 선을 배웠다. 무염(無染), 실크로드 사전, 2013.10.31, 정수일

2) 원묘(1163~1245). 고려 후기의 승려.

3) 무외는 생물연대 미상이지만 고려 후기 충렬·충선·충숙(재위 1313~1330) 3대 국왕에게 왕사와 국사로 추앙되면서 불교계를 이끌었다. 특히 충숙왕 때 국통으로 추앙받았다.

4) 진정은 생물연 미상으로 고려 고종(1192~1259) 때의 승려이다. 소년에 급제하여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나, 무상을 느끼고 강진 만덕산(萬德山)백련사(白蓮社)로 출가하여 천태종장(天台宗匠) 원묘국사(圓妙國師)의 제자가 되었다.

主秩), 연화질(緣化秩), 목수질(木手秩) 등 중수 당시 참여한 직임과 승명, 인명 등이 적혀 있고, 끝에 ‘승정기원후재을유사월일 산인총신서(崇禎紀元後再乙酉四月 日 山人聰信書)’라 하여 ‘을유년(1765년)’에 총신이 중수기의 글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강진 백련사 조선시대 이후의 연혁

시기	내용	출처
1407. 12.	2차 사찰정리기에 조계종 자복사 24개 사찰에 소속	만덕사지
1430. ~ 1436.	행호 선사가 주관, 효령대군이 불사 시주	만덕사지
1621. ~ 1627.	취여삼우 스님이 법회	만덕사지
1650. ~ 1659.	현오 스님이 서원의 불전 중수	만덕사지
1681.	탄기 스님이 <백련사사적비> 건립	만덕사지
1726. 9. 4.	해탈문 붕괴	해탈문 중수기
1726. 10. 15.	해탈문 재건	해탈문 중수기
1760. 02.	대화재로 불전 대부분 소실	만덕사지
1761. 4. 8. ~1762. 4. 13.	재건 불사	만덕사지 만덕산백련사법당중수기, 종도리 상량 목서
1766. 5. 26.	명부전 중창	명부전 상량문
1776. 3. 1.	응진당 신창	응진당 상량문
1817. 2. ~ 5.	고려 팔국사각 건립	만덕산 고려팔국사각 상량문
1835. 7. 15.	장릉의 조포사인 검단사의 속사로 지정	승정원일기
1836. 3.	해탈문 중수	해탈문 중수기
1917. 4.	만덕사에서 백련사로 개명	조선총독부 관보
1942.	명부전 중수	명부전 중수 현판
1969. 3. 13.	명부전 3중창	명부전 상량문
2003. 6.	만경루 해체보수, 1층 통로 개설	보수 도면
2007.	대웅보전 및 만경루 마루 교체	주지 스님
2008.	명부전 완전 해체보수, 번와	보수 도면
2010.	대웅보전 연목 상부 수리	보수 도면
2012. 5.	사역 전체 보수	보수 도면
2013. 7. 8.~ 10. 5.	명부전 및 삼성각 단청	강진 백련사사적비 주변 정리현판
2014. 11.	일주문과 해탈문 건립	

또한 2010년 대웅보전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종도리 하부의 걸상량문이 확인되었다. 종도리 하부를 장혀 면에 맞게 반듯하게 마름질하여 하부에 “건륭 26년(乾隆 二十六年 辛巳…(과손) 上樑)”이라 기록하여 1761년 상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760년 화재로 소실되어 1761년 상량 후 1762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법당 중수기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웅보전의 직접적인 상량 목서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표 2 강진 백련사 기록유산

명칭	시대	내용	연대
백련사 사적비 (귀부)	고려	최자가 찬하여 1245년경 원묘국사비(중진탑비)가 건립되었고, 조선 초 행호가 중창할 때까지 남아 있다가 임진왜란 때 비신과 이수가 파괴	1245년경 건립
백련사 사적비 (비신, 이수)	조선	비문은 조정저(1631~1690)가 지었고, 낭선군 이우(1639~1693)가 썼는데, 상단의 제액 전서만은 낭원군 이간(1640~1699)이 썼음.	1681년(숙종 7) 조성
만덕산 백련사 (萬德山 白蓮社) 편액	조선	다산 정약용이 김생의 글씨를 보고 쓴 발문(跋文)에 의하면, 낭선군 이우가 김생(金生, 711~791)의 글씨를 집자하여 쓴 것으로 추정	이우(1637~1693)
해탈문 중수기 현판	조선	정설 지일(晶雪智逸) 스님이 지은 글. 해탈문은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만경루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	1836년(헌종 2)
만덕산 백련사 대법당 중수기 현판	조선	동강(桐岡) 이의경(李毅敬, 1704~1778)이 지은 글을 같은 해 4월에 백련사 스님 총신이 글씨를 써서 새긴 것	1765년(영조 41)
시왕전(명부전) 중수기 현판	조선	만덕사지(萬德寺誌) “十王殿”	1739년(영조 15)
만덕사 고려팔 국사각 상량문 현판	조선	『만덕사지』의 완성을 기념하고 유서 깊은 법화 도량으로서 만덕사의 위상회복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선언문적 성격을 띤 글	1817년(순조 17)
명부전 중수기 현판	일제강점기		1942년

5.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백련사는 강진읍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지점의 만덕산(萬德山)의 중턱에 자리한다. 사찰 전면으로는 강진만이 내려다보이고, 경내 남쪽과 서쪽으로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동백림과 함께 송림으로 뒤덮여 경관이 무척 아름답다.

상당한 경사지임에도 경내 불전들은 모두 동서 방향의 수평 지형축을 따라 남향으로 자리한다.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전면의 만경루와 일직선상에서 마주 보며 자리한다.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배치인 주불전과 누각, 이를 에워싸는 관음전과 선원에 의해 장방형의 마당을 가진 사동중정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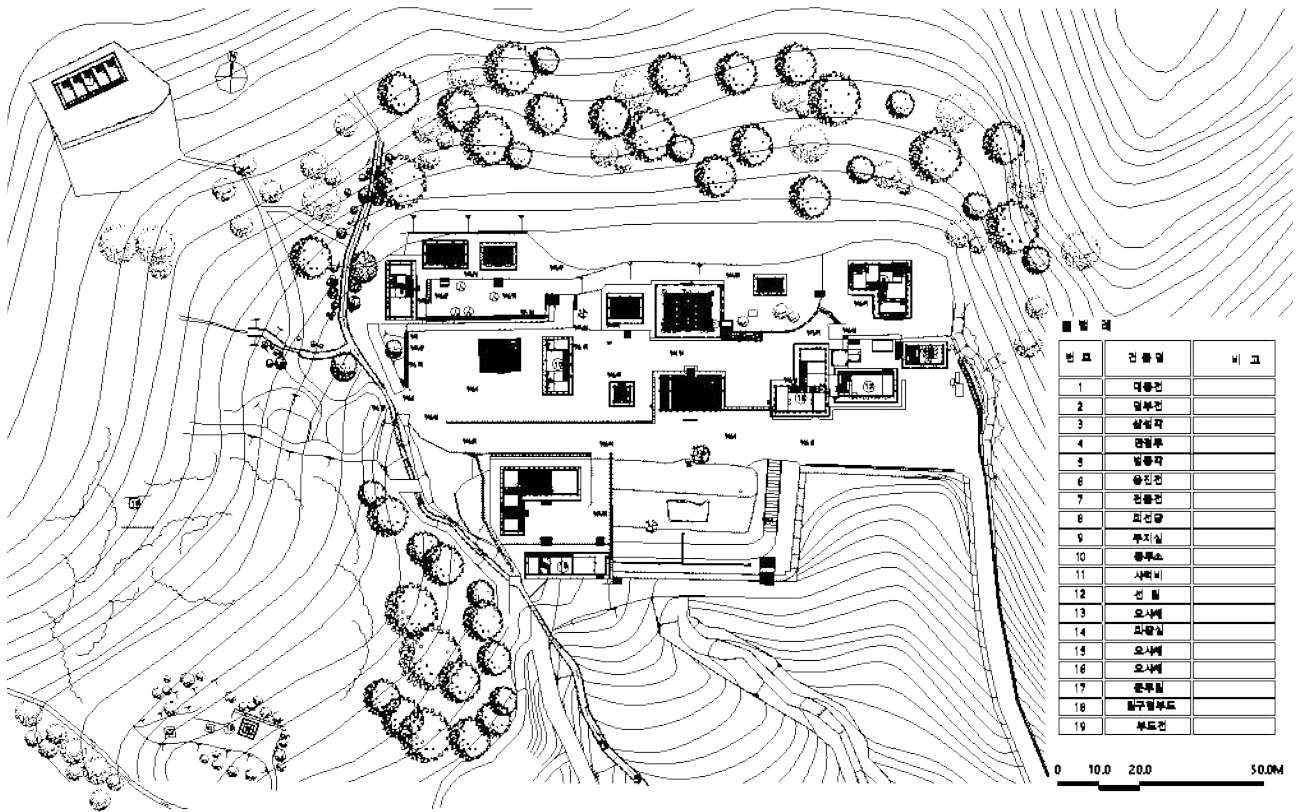


그림 1. 백련사 배치도

대웅보전의 좌우로는 대웅보전과 같은 방향의 좌측(서쪽)에 명부전, 우측(동쪽)에는 삼성각이 있다. 동서 방향으로 긴 대지이기 때문에 건물의 좌향은 모두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명부전의 좌측 언덕 위로는 응진전과 천불전이 있으며, 이 사이 아래에 대웅보전 방향으로 동향하는 관음전이 자리한다. 관음전은 현재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만경루의 우측으로 ㄱ자형의 선원이 있고 이 우측에 다시 ㄱ자형의 약사전과 이 앞으로 화장실이 있다.

6. 건축 현황 및 특징 :

1) 평면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내부고주 2본이 세워져 1고주 7량가이다. 내부 고주는 예불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면 쪽의 기둥은 생략한 형태이다.

정면이 길이는 전체 11,300mm, 측면은 9,700mm이며, 장단변비는 측면을 기준으로 1:1.16으로 정방형에 가깝다. 정면과 측면 모두 3칸으로 양 퇴칸과 정칸으로 구분되며, 정면과 측면 모두 퇴칸보다 정칸의 길이가 길다.

규모는 98.31㎡(29.74평)로 해남 미황사 대웅전(27.26평, 1598년 중건, 1754년 중수),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27.39평),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28.05평, 1735년 중수), 개암사 대웅

전(28.15평, 1636 중건, 1783 중수),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31.72평, 1633 중수) 등과 유사하다. 특히 불영사, 개암사, 내소사 대웅전은 정면 정칸이 퇴칸보다 큰 점도 동일하다.

2) 기단과 계단

기단은 자연석 기단으로 자연석을 그랭이질하여 막돌 바른층쌓기로 구성된 석단이다. 기단의 상부 마감은 강회다짐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배면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우측 전면 계단은 자연석을 가공한 계단석을 사용하였으며, 계단의 디딤단은 9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내밀기는 4면에서 대부분 동일하게 설치되어 기둥 중심선에서 2.4m 정도 내밀었는데 처마 내밀기가 3.1m 정도임을 고려할 때 처마 내밀기가 상당히 큰 편이다.

3) 초석

초석은 모두 자연석으로 기둥의 직경과 같이 우주의 초석은 기둥 직경의 3배 정도로 상당히 크고 넓은 편으로 안정적인 느낌이며, 내부 평주는 다소 작은 크기이다. 또한 활주 초석은 다듬돌로 상부에 주좌를 두고 양편이 표현되었으며, 하부는 팔각으로 동자주와 같은 표현이 있고 내부에 문양을 새겼다.

5) 기둥

기둥은 내부 고주 2분을 포함하여 총 14분이 사용되었으며, 우주(570mm)가 평주(480~520mm)보다 50~90mm 정도 큰 것으로 보아 하중을 고려한 우주 크기를 크게 설정하였다. 내부 고주(420mm)는 평주보다는 작은 굵기이다. 우주 바깥쪽으로 활주(210mm)도 설치되었는데 직경은 우주나 평주의 굵기에 비하여 절반 이하이다. 즉 기둥의 굵기는 우주가 가장 굵고, 그다음으로 평주, 내부 고주, 활주 순이다.

6) 가구

평방 위로 주두를 놓고 화려한 공포를 올렸으며, 4제공에서 대들보를 받치고 있고, 이 대들보의 머리를 5제공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1고주 7량가의 일반적인 구조이지만, 중도리의 위치는 내부고주의 상부에 있지 않는데 이 중도리의 위치는 측면의 퇴칸 기둥과 일직선상이므로 내부 고주의 위치를 뒤쪽으로 살짝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면의 예불 공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고주는 측면 기둥열에서 약 265mm를 후퇴하여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데, 좌측의 대들보는 전·후면 평주를 연결하는 한 본으로 된 통보이지만 우측 보는 뒷보와 맞보 형식으로 연결되었다. 보의 전체 길이가 8.7m이고 춤이 약 600mm 정도로 매우 크므로 반듯한 대형 목재를 수급하지 못하여 맞보 형식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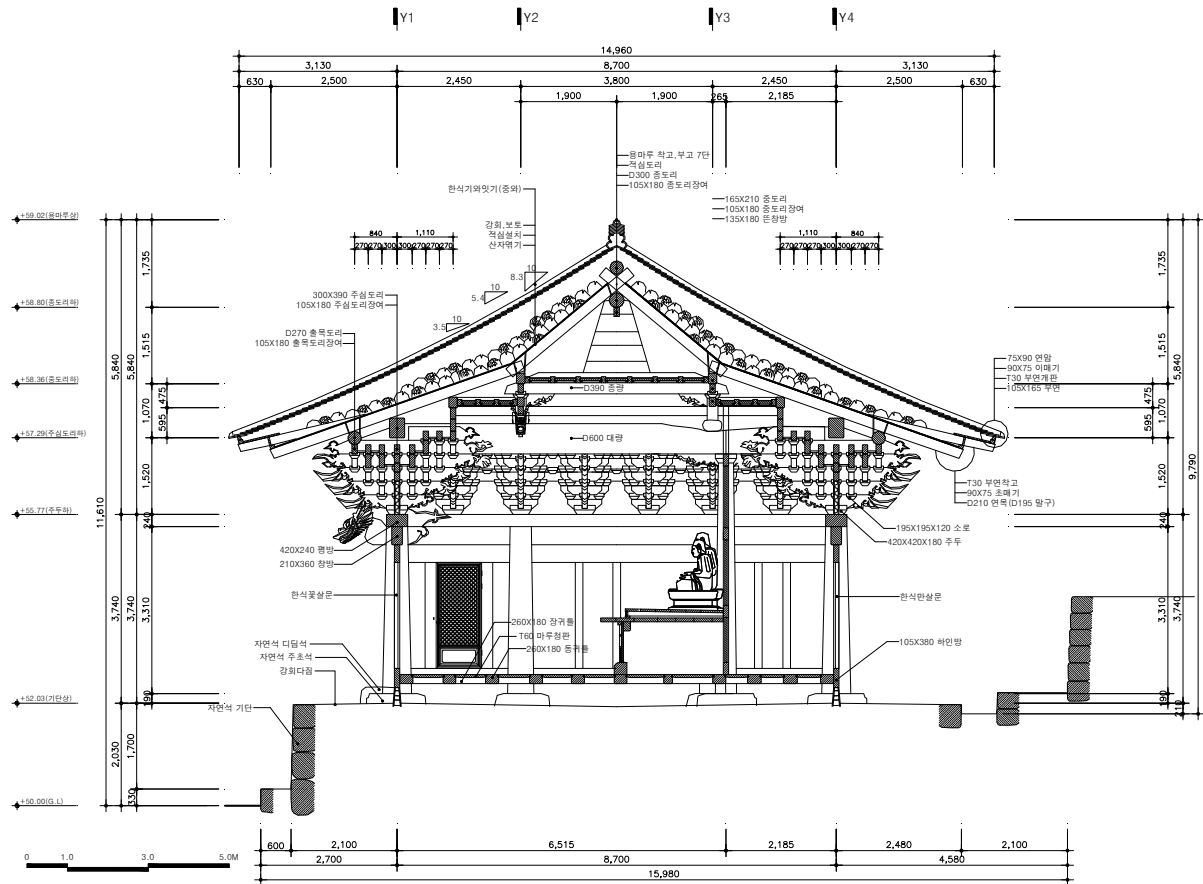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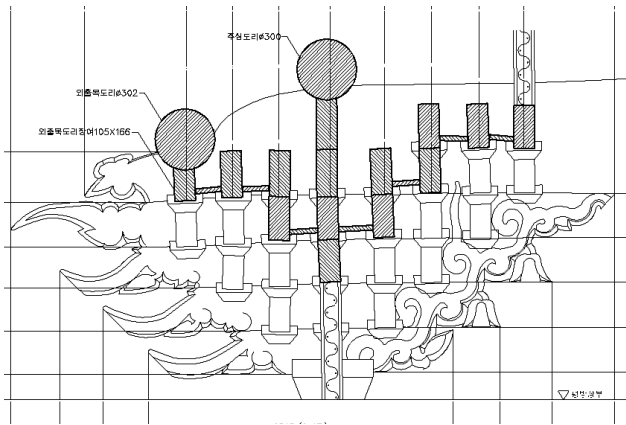
그림 2. 백련사 대웅보전 종단면도

도리는 종도리와 외목도리만 굴도리이며, 나너지 주심도리와 내출목도리, 종도리는 납도리로 되어있다. 주심도리(300x390)는 내출목도리와 종도리보다 그 굵기가 4배 정도 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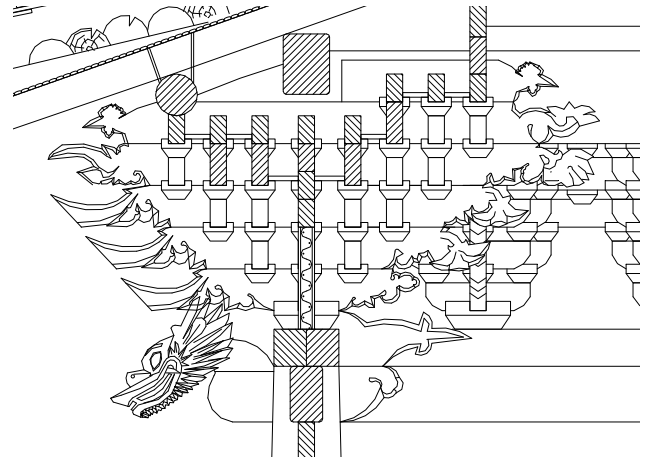
7) 공포

기둥 상부에서는 창방과 평방을 올리고, 그 위에 주두와 공포를 올렸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으로 매우 화려하다. 외부 쪽으로는 용두형 안초공을 설치하였다. 외부 쪽의 초각은 1제공에서부터 3제공까지는 연화양서형을, 4제공은 연봉수서형을, 5제공은 봉두형으로 조각하였다. 외관상 주상포와 주간포의 구성은 동일하며, 주상포 4제공에서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데 대들보 머리를 봉두형으로 조각한 것인지 혹은 붙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같은 살미 제공의 구성은 조선시대 후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18세기 이후 공포의 구성이 법식화 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백련사 대웅보전의 공포는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여러 단으로 구성된 살미의 구성이 최상단 살미는 구름이나 봉두를 조각한 운공(雲工)형, 그 바로 아래 단 살미는 수서(垂舌)형의 제공, 그리고 나머지 아래 단의 살미들은 양서(仰舌)형의 제공으로 만드는 법식화(法式化)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미황사 대웅전 정면 공포 단면도



백련사 대웅보전 공포 단면도

그림 3. 해남 미황사 대웅전 현황과 백련사 대웅전의 공포

백련사 대웅보전의 살미 구성은 이러한 다포계 공포의 범식화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의 공포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이는 미황사 대웅전의 경우 백련사 대웅보전의 중수 시기와 7년의 차이밖에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지붕

처마는 겹처마이며, 서까래는 장연과 단연이 설치되었다. 중도리 위에서 엇걸이 산지로 이음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연의 물매가 낮는데, 이는 처마 내밀기가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 물매를 낮추어 장연 뒷뿌리를 눌러주는 보토량을 많게 하려는 방법이기애 그러하다.

7.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강진 백련사는 신라 말 문성왕 때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하지 않고, 다만 경내에 보물로 지정된 『백련사사적비』의 비문과 대웅보전 내부에 걸려 있는 <백련사대법당중수기> 편액의 내용에서 사찰의 내력 및 현 대웅보전의 중건 배경 및 내용을 알 수 있다.

고려 때 원묘국사 요세가 중창하여 1216년 일을 마쳐 건물이 80여 칸이나 되었으며, 이후 조선 세종 초에 왜적의 침탈로 여러 불전이 훼손되자 천태종 대종사를 지낸 행호 대선사와 제자들이 1430년(세종 12) 중창을 시작하여 1436년(세종 18년)에 완성하였다. 이후 1760년 큰불로 백련사의 모든 건물이 잿더미로 변해 다음 해인 1761년(영조 37)에 대웅보전을 비롯한 공사를 시작하여 1762년(영조 38)에 완료하였다. 현재의 대웅보전은 이때 건립한 것이다.

또한 2010년 대웅보전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건륭 26년(1761년) 상량’이라는 종도리 하부 걸상량 목서가 확인되어 편액의 내용과 일치하는 절대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수기 내용은 동강 이의경의 문집 동강유고 중 <강진만덕산백련사중수기>에 실려 있고, 사찰의 기록인 <만덕사지>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건물 자체의 걸상량, 중수기 편액, 글쓴이의 문집 기록,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까지 모두 4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현재의 대웅보전은 1762년 중건 이후의 모습으로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내부 고주 2본이 세워져 1고주 7량가이다. 내부 고주는 예불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정면 쪽의 기둥은 생략한 형태로 정칸이 퇴칸보다 크다. 이러한 평면유형은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과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과 유사하다.

건물의 공포는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여러 단으로 구성된 살미의 구성이 최상단 살미는 구름이나 봉두를 초각한 운공(雲工)형, 그 바로 아래 단 살미는 수서(垂舌)형의 제공, 그리고 나머지 아래 단의 살미들은 앙서(仰舌)형의 제공으로 만드는 법식화(法式化) 현상을 보여주는 전환기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기둥 상부의 용두형 안초공 장식과 층량 마구리의 용두형 징식, 천장 상부의 용두형 장식, 공포 제공의 화려한 초각, 고주 창방 뿔목의 극락조와 사자상 장식 등은 매우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이러한 기법은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도 확인되는 매우 독특하고 희귀한 기법으로 상기의 장식화 경향과 맥을 같이 하며, 두 불전 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기법과 구조가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1754 중건)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1774 중건) 등과 매우 유사하고 이들 불전의 건립 시기가 유사하여서 이들 불전 간의 상호 관계를 비교하여 밝히는데 있어서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02.08.	대상문화재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
	소속	○○○○○○○ 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8월 3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지리와 역사

강진군은 한반도 서남쪽 해안에서 해남군과 장흥군 사이를 남쪽으로 길게 파고든 강진만을 가운데 끼고 있기 때문에 바지 모양으로 경계가 형성된다. 북쪽으로는 월출산을 경계로 영암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완도군의 여러 섬에 이를 수 있다. 장흥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흘러온 탐진강 하류가 가장 큰 수계이고 직각으로 꺾여 강진만으로 흘러나가는 곳에 읍치가 형성되었다. 탐진강의 탐진(耽津)은 통일신라시대에 탐라국의 사신이 신라에 조공하러 올 때 배를 댔던 나루터에서 유래한 지명으로서 이 부근이 고대로부터 남부지역 교역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진만은 좌우 산세의 영향으로 바람이 적어 파도가 없고 밀물과 썰물 사이에 해산물이 넘쳐나서 풍요로운 고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빼어난 경치와 편리한 교통, 풍부한 물산이 편안한 나루터로서 강진(康津)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강진에 있는 중요한 유적지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고려시대 전시기를 포괄하는 188개의 도요지(陶窯址)이다. 고려시대 강진에는 대구소와 칠량소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지금의 대구면과 칠량면이 자리한 지역이다. 소(所)는 금, 은, 철 등 광물이나 수공업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행정구역으로서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청자를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다. 강진의 토양에는 고령토와 규석이 풍부하고, 주변에서 땀감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항구를 통해 완성된 청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왜구의 침략으로 생산시설이 폐쇄해지고 바닷길을 통한 교통이 막히면서 강진 지역의 도요지와 고려청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조선시대에는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진에 병영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지방군제는 관찰사가 겸임하는 본영과 병마절도사가 관장하는 병영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라도 본영은 전주에 있었고 병영은 지금은 광주 경내의 광산현(光山縣)에 있었다. 그러나 왜구들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 태종 17년(1417) 병영을 현 강진 경내의 도강현(道康縣)으로 옮기게 되었다. 강진군 내 동북쪽 병영면의 지명은 전라병영성에서 유래한다. 최초의 전라도병마절제사인 무장 마천목(馬天牧)은 해발고도 561m 수인산(修仁山) 아래 터를 잡고 성을 쌓았다. 전라병영성(全羅兵營城)은 이후 고종 32년(1895) 갑오경장까지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로 기능했다. 특히, 병영성은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 일행이 1656년부터 1663년까지 억류되어 노역했던 곳으로서, 주변에 '하멜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다.

강진군 서북쪽의 월출산은 해발고도 809m로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월출산은 통일신라시대에 국가에서 소사(小祀)로 제사를 지내던 월나악(月奈岳)으로서, 민간신앙에서 신성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수신앙의 발원처 등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월출산의 동쪽에는 천황사(天皇寺)가, 서쪽에는 도갑사(道岬寺)가 자리잡아 영암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 남쪽의 무위사(無爲寺)는 강진에서 접근한다. 무위사에는 세종12년(1430)에 건축된 극락보전과 성종7년(1476)에 그린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등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백련사가 소재한 만덕산(萬德山)은 강진읍 남쪽으로 도암면과 경계에 있으며, 제일 봉우리가 해발 약 400m 남짓한 중규모의 산이다. 13세기 승려 혜일(慧日)은 “앞 봉우리는 돌집 같고 뒷 봉우리는 연꽃 같다(前峯如石廩, 後峯如芙蓉).”고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만덕산(萬德山) 남쪽으로 대해(大海)에 임해서 소나무·잣나무·대나무·동백나무가 섞여 있으며, 수목이 싱싱하게 푸른 모습이 사계절을 통해 한결같은 절경이라고 했다. 백련사 동백나무 숲은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2) 인물과 사건

만덕산 백련사는 두 인물의 행적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먼저 원묘국사 요세(圓妙國師 了世, 1163~1245)는 고승 지눌(知訥)과 함께 송광사에 머물다가, 1208년에 천태종의 묘의(妙義)를 얻었고, 강진에 살고 있던 최표(崔彪)와 최홍(崔弘), 이인천(李仁闡) 등의 권유로 만덕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제자 원영(元營)의 주도하에 가람을 중창하는 공사가 1211년부터 1232년(고종 19)까지 21년 동안 이어졌으며, 당시 목백(牧伯)이 지극한 정성으로 재물을 보시(布施)하였다고 한다. 사찰이 완공되자 요세는 보현도량(普賢道場)을 개설하고 실천 중심의 수행인들을 모아 결사(結社)를 맺었다. 이것이 조계종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수선결사(修禪結社)와 쌍벽을 이루었던 천태종계의 백련결사(白蓮結社)이다. 백련결사는 지방 향리층과 독서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불교계의 세속화와 사회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운동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요세는 고려 불교사에서 서민 대중과 가장 가깝게 호흡했던 불교지도자로 평가된다. 이후 고려말에 백련사에서는 팔국사(八國師)인 원묘(圓妙), 정명(靜明), 원환(圓院), 진정(眞靜), 원혜(圓慧), 진감(眞鑑), 목암(牧菴)을 배출했고, 이 중 진정국사는 1250년대 후반 백련사에 주석하면서 「백련결사문(白蓮結社文)」을 공포하고 『호산록(湖山錄)』을 펴냈다.

또 하나의 인연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이 1801년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

書事件)으로 강진으로 유배된 후 시작되었다. 1805년 봄에 정약용은 백련사의 당시 이름이었던 만덕사(萬德寺)를 방문하여 아암 혜장(兒庵 惠藏, 1772~1811)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혜장은 정약용의 유교 경전과 불경 해석의 탁월함에 감탄하여 깊은 교유를 지속했다. 정약용 역시 1808년 근처의 초당으로 거처를 옮겨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당시 불교계에 대한 정약용의 업적은 사지(寺誌) 찬술이라 할 수 있다. 양란 이후 조선사회에서는 사찰의 재건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찰의 역사를 편찬하는 작업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찰의 명분과 정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창건 시기를 앞당기고, 창건주에 원효와 의상을 억지로 끼워 넣는 등 사지의 정확성과 객관성에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약용이 주도한 『만덕사지(萬德寺志)』는 전혀 다른 감각과 태도로 사지 편찬의 관습을 쇠신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만덕사지』 편찬사업은 정약용이 다산초당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1813년에 착수하였다. 찬술은 6명의 찬자가 참여하였는데, 정약용은 전권(全卷)에 대해서 감정(鑑定)을 맡았다. 감정은 내용에 대한 고증(考證) 작업을 가리킨다. 혜장의 제자인 만덕사의 승려들이 편집과 교정을 맡았고, 정약용의 제자 학림 이청(鶴林 李清, 1792~1861)도 참여했다. 이들 중 수룡 색성(袖龍 曠性)과 기어자홍(騎魚慈弘) 등은 『만덕사지』에 앞서 해남 대흥사의 『대둔사지(大菴寺志)』(1814)를 찬술한 경험도 있었다. 그러므로 두 사지의 체재(體裁)나 찬술 방식, 불교사 인식의 경향이 매우 유사하다. 1816년에 완성한 『만덕사지』는 필사본이며 총 6권 1책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이 만덕사의 연혁과 인물의 단편적인 기록에 국한되지 않았고,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면밀한 고증이 돋보이며, 조선 후기 대중국관의 변화와 자주적 역사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정약용은 다산초당에 유배하면서 백련사를 드나들며 차(茶) 문화를 이끌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유불상교(儒佛相交)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1) 백련사 대응보전의 건축연혁

백련사는 839년(문성왕 1) 무염(無染)이 창건하였으나, 중요한 수도 도량으로 면모를 달리한 것은 13세기 초 요세(了世)가 크게 중창한 뒤이다. 요세는 그의 제자 원영(元營)으로 하여금 가람 80칸을 짓게 하였다고 한다. 이 역사는 1232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여덟 국사를 배출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천태종(天台宗) 사찰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강진 지방이 세 차례나 왜구의 침입을 받으면서 절도 함께 폐허가 되었다.

조선 세종대에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의 지원으로 주지 행호(行乎)가 가람을 중창하였다. 윤희(尹淮, 1380~1436)의 「만덕산백련사중창기(萬德山白蓮社重創記)」(1430)는 『동문선』 제81권에 전하는데, 행호가 중창불사를 서원(誓願)하고 효령대군에게 편지를 올려 대공덕주(大功德主)가 되어 주기를 청했고, 공사는 경술년(1430) 가을에 시작하여 병진년(1436) 봄에 마쳤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불전과 요사가 거의 옛 모습을 회복하였고, 설법하고 축복하는 행사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했다. 중창기에 따르면 주지 행호는 해주최씨 최충(崔冲, 984~1068)의 후손으로, 태종이 치악산에 각림사(覺林寺)를 짓고 창건대회를 베풀 때부터 왕실에 인연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두류산(頭流山)의 금대암(金臺庵)과 안국사(安國寺), 천관산(天冠山)의 수정사(修淨寺)가 모두 그가 지은 건축물이고, 백련사가 마지막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또, 행호는 왜구에게 침탈당했던 옛일을 거울삼아 절을 둘러싼 토성을 쌓았다고 전하는데, 이것을 지금도 행호토성이라 부른다.

백련사는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으나, 취여삼우(醉如三愚(1622~1684)의 중흥에 의해 큰 법회가 열렸고, 효종 연간인 1650년대에 현오(玄悟)에 의해 10년간 서원(西院)의 불전들이 중수되었다. 숙종 7년(1681)에는 탄기(坦奇)가 남악 조종저(南岳 趙宗著, 1631~1690)에게 글을 부탁해 <만덕산백련사비(萬德山白蓮寺碑)>를 세웠다. 백련사비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귀부(龜趺)를 재사용하였고, 이수(虯首)의 조각 수법이 뛰어난 점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에 보물 제1396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영조 36년(1760) 2월 1일 밤에 발생한 대화재로 대웅전과 만경루 등 불전과 요사를 합쳐 수백여 칸이 소실되었다. 곧 총신(聰信), 왈찰(曰札) 등이 중건을 서원한 후 재목을 구하고 기술자를 모았다. 공사는 1761년 4월 초파일에 시작하여, 1년 만인 1762년 4월 13일에 완료하였다. 이 당시의 일은 강진 출신의 학자 동강 이의경(桐岡 李毅敬, 1704~1778)이 짓고 총신(聰信)이 글을 쓴 「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萬德山白蓮寺大法堂重修記)」(1765)에 정리되었다. 기문은 『동강유고(桐岡遺稿)』 권2에 실려 있으며, 조금 축약된 내용이 법당 내부에 현판기문으로 걸려 있다. 중수기에는 중창불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의 직임을 기록했는데, 대시주질(大施主秩)은 가선 오이상(嘉善 吳以尙), 가선대부 비구 왈찰 박태무(嘉善大夫 比丘 曰札 朴太茂) 등 19명을 비롯해, 연화질(緣化秩), 야장(冶匠), 목수질(木手秩), 산중대덕질, 전행질, 지전, 삼강, 서기 등 직임을 기록해서 불교건축 생산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중 도편수(都片手)는 승려 유신(維信), 부편수(副片手)는 이동빈(李東彬), 승묵편수(繩墨片手)는 승려 대인(大仁)으로 목공사를 승장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0년 해체보수 당시 확인된 중도리 하부의 상량 목서에는 “건륭 26년 신사(乾隆二

十六年辛巳)”가 확인되어 1761년 복구 사업을 시작한 해에 이미 상량을 마쳤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건축은 1760년 화재로 소실된 후, 1761년 4월에 복구를 시작해 입주와 상량을 그 해에 마쳤고, 1762년 4월 13일에 내외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결과가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726년 9월 4일에 해탈문이 붕괴되었으나 곧바로 10월 15일에 재건하였고, 1766년 5월 26일에 시왕전을 중창하였으며, 1776년 3월 1일에는 나한전을 새로 지었다. 1817년에는 고려시대 팔국사(八國師)의 위패를 봉안하는 고려팔국사각이 건립되었고, 1836년 3월에는 해탈문이 중수되었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에 명부전을 중수했으나 곧 소실되어 1969년에 다시 한 번 중수하였다. 1986년 2월 7일에 강진 백련사 대웅전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다. 특히 천장 상부의 목재들이 심각하게 틀어지고 일부 목재가 부러져,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전면 해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백련사 대웅보전의 건축적 특징

① 평면과 기단

백련사 대웅보전의 평면 규모는 98.3㎡으로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불전 건축에 해당한다. 정면의 길이는 11.3m, 측면은 8.7m로서 장단변비가 1:1.3 정도이다. 영조척을 310mm로 가정하면 정면 약 36.5척, 측면 약 28척으로 계산되지만, 정칸·협칸·퇴칸의 치수 사이에 정수비가 성립하지 않아서 포의 배열을 전제로 한 모듈 개념으로 평면이 구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칸 구성은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정면과 측면에서 가운데 칸이 좌우 칸보다 1.5배 정도 넓으며, 정면의 협칸이 측면의 퇴칸보다 넓다.

기둥은 외부에 12개, 내부에 2개를 두었다. 평주는 직경 500mm 내외이고, 우주는 이보다 큰 570mm 정도를 사용했다. 특이하게 내부 고주는 평주보다 직경이 작아서 420mm로 측정된다. 기둥 아래 초석은 넓은 자연석 주초를 사용하였고, 활주 아래에만 연꽃을 새긴 다듬은 초석을 두었다. 기단은 기둥 중심선에서 약 2.4m 내밀었는데, 처마가 3m 이상 펼쳐지는 것에 비해 조금 작은 규모이다. 원래 기단은 막돌 허튼층쌓기로 높게 축조되어 있었으나, 2009년 정비 당시 다듬은 돌로 교체하여 정면의 인상이 바뀌었다.

② 가구 구성

단면 계획은 1고주 5량가의 구성을 기본으로 내주를 뒤로 260mm만큼 이동시켰다. 대들보는 춤이 약 600mm에 달하는 육중한 목재로 공포의 4제공 위에 올라앉았다. 좌측의 대들보는 전후면의 공포를 한 번에 연결하는 통보이지만, 우측의 대들보는 내주 위에서 뒷보와 맞보 형식으로 연결되었다. 대들보 아래로는 후면 공포에서 연결되는 4제공 살미첨차가 기둥의 사패를 뚫고 지나 보아지처럼 길게 내민 점이 특이하다. 건립 시기가 비슷한 해남 미황사 대웅전(海南 美黃寺 大雄殿, 18세기)에도 동일한 기법이 적용되었으므로, 건축기술의 직접적인 교류를 짐작해볼 수도 있다.

대들보 위로는 동자주를 올리고 종보를 얹었다. 측면 공포와 대들보 사이에는 층량을 걸었다. 좌우로 각각 2개씩 걸려 있는 층량들 중, 전면 층량에만 용두(龍頭)를 조각해 끼웠고, 후면 층량의 끝단은 직절된 면에 단청을 베풀었다. 우물 천장은 가운데는 중도리 높이에서 한 단, 주위를 둘러 내목도리 높이에서 다시 한 단이 설치되었다. 도리는 주심도리, 외목도리, 내목도리를 모두 갖추고 중도리와 종도리를 합쳐 총 9개가 설치되었다. 이중 외목도리와 종도리만 굴도리이고, 나머지는 납도리이다. 납도리 중 주심도리는 300×310mm의 큰 단면이지만, 나머지는 수장폭만큼 작은 단면을 이용했다.

기둥 위에는 창방과 평방을 설치했는데, 정면 쪽으로 용두를 끼운 안초공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평방은 통부재가 아니라 두 개의 부재를 맞대고 축을 끼워 단일 부재처럼 사용하였다. 이는 부재를 절약하고 뒤틀림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다른 사찰에서도 확인되는 기법이다. 이중으로 평방을 얹는 기법은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完州 威鳳寺 普光明殿, 17세기),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扶安 來蘇寺 大雄寶殿, 17세기), 부안 개암사 대웅전(扶安 開岩寺 大雄殿, 17세기), 나주 불회사 대웅전(羅州 佛會寺 大雄殿, 18세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공포 양식

공포는 기둥마다 주상포를 두고, 주간포는 정면 정간에 3구, 양 협간에 2구씩, 측면 정간에 2구, 각 퇴간에 1구씩 배열했다. 그러나 칸 치수가 비례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서 공포의 간격은 칸마다 상이하다. 정면 정간에는 주간포가 3구이며 그 간격이 1,175mm가 되고, 협간에서는 주간포가 2구이며 그 간격은 1,100mm가 된다. 측면 퇴간에서는 안정적으로 추녀를 받치기 위해 마지막 공포 간격을 정면 협간에 맞추었다. 그에 따라 퇴간의 중심에 주간포가 놓이지 못하고 귀쪽으로 이동하여 비대칭인 모습이 되었다. 측면 정간의 공포 간격은 1,267mm로서 정면보다 오히려 넓다.

귀포의 귀한대를 포함해 주상포와 주심포, 정면, 측면, 배면 공포의 구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모두 외3출목 내4출목 형식이다. 제공의 외부는 초제공에서부터 3제공까지 연화 무늬가 결합된 양서형(仰舌形)이며, 4익공은 연봉이 달린 수서형(垂舌形), 5운공은 봉황의 머리 모양으로 장식했다. 제공의 내부는 살미 끝에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연봉·연밥·연밥·연꽃을 조각했고, 그 위로 봉두(鳳頭)를 조각해 끼웠다. 외부에서 주상포와 주간포는 형태의 차이가 없지만, 내부에서 주상포는 대들보 아래에서 끝나고 주간포는 6두공까지 겹쳐 올라간다.

이러한 내외부 살미의 구성은 18세기 이후 공포양식 전형화의 한 갈래를 이룬다. 살미 부분이 연꽃과 연봉으로 뒤덮이고, 내외부 모두 봉두(鳳頭) 조각으로 윗부분이 마무리되는 공포양식은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海南 美黃寺 大雄殿, 1754), 영광 불갑사 대웅전(靈光 佛甲寺 大雄殿, 1765), 경주 불국사 대웅전(慶州 佛國寺 大雄殿, 1765),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慶州 祇林寺 大寂光殿, 1785)까지 18세기 중반 이후 호남에서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승려 장인의 활동 영역 확대에 따라 건축의 지역적 특징이 시대적 특징으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건축은 그 전형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실내의 장식

백련사 대웅보전 실내 장엄의 한 특징은 우물천장을 이중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18세기 불전에서는 팔작지붕 건물의 경우 우물천장 주변으로 빗천장을 구성해서 공포에 연결하고, 맞배지붕의 경우 앞뒤로 단을 낮춰 우물천장을 한 번 더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백련사 대웅보전은 팔작지붕 건물임에도 이중으로 우물천장이 설치된 점이 특징이다. 유사한 사례로 고성 옥천사 대웅전(固城 玉泉寺 大雄殿, 1745),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 1774),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龍珠寺 大雄寶殿, 1790)이 있다. 백련사 대웅보전에서 이중으로 구성된 우물천장은 단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불상 위로 별도의 단집을 설치하지 않은 불전으로 내소사 대웅보전(扶安 來蘇寺 大雄寶殿, 1633), 기림사 대적광전(慶州 祇林寺 大寂光殿, 1785)이 있으나, 우물천장 주변으로 빗천장을 설치한 사례이고, 평우물천장을 단을 두고 설치하여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과 유사한 곳으로는 경주 불국사 대웅전(慶州 佛國寺 大雄殿, 1765)이 있다.

불상 위로 파인 우물천장의 둘레에는 앞뒤로 세 마리씩 용조각을 배치하여 장엄했다. 천장의 아래로는 양측 충량을 몸통으로 삼는 용이 좌우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불전 내부의 용장식은 석가가 탄생하자 하늘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나타나 성수(聖水)로 몸을 씻기고

네 송이의 연꽃이 땅에서 솟아 발을 받들었다는 설화를 모티브로 한다. 부안 개암사 대웅전(扶安 開岩寺 大雄殿, 1783)에는 아홉 마리의 용과 열세 마리의 봉황이 장식되어 있고, 강화 전등사 대웅전(江華 傳燈寺 大雄殿, 1621)에도 용두 장식과 함께 아홉 개의 방울을 달아 구룡이 함께 우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했다. 백련사 대웅보전에서 용머리를 받친 대들보의 가운데는 날개를 편 극락조가 한 마리씩 걸터앉았다. 내주에는 불벽의 좌우로 각각 봉황과 사자가 몸을 길게 뻗 모습으로 끼워져 있다. 또, 정면의 가운데 두 기둥 상부에는 용두형 안초공을 두 단으로 설치하였다. 창방과 교차하는 부분은 웅크린 몸통이 되고, 평방과 교차하는 부분은 안팎으로 꼬리와 목을 이룬다. 용두는 별도의 부재로 조각하여 앞에 부착하였다. 외부에서 볼 때, 왼쪽은 황룡이고 오른쪽은 청룡이다. 용은 호법(護法)과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니며, 임진왜란 이후 호남의 해안지역에서 크게 발달한 건축장식이다.

용두(龍頭) 사이에서 획들이 꿈틀거리는 <대웅보전(大雄寶殿)> 현판은 원교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완도 앞 신지도(薪智島)에 유배 중 1763년에 들러 써준 글씨라고 한다. 「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를 쓴 강진 출신 이의경(李毅敬)과 연배가 비슷하고 편지로 교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이의경의 부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대웅보전 실내에 <만덕산·백련사(萬德山·白蓮社)> 편액이 하나 더 걸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라 경덕왕대의 명필인 김생(金生, 711~791)의 필체로서, 17세기 <만덕산백련사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집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광사의 현판이 대웅보전 정면에 게시되면서 구 현판을 실내로 옮긴 것으로 짐작된다.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지붕은 팔작지붕 형식이다. 처마는 겹처마로 구성했고, 장연과 단연은 중도리 위에서 엇걸이 산지로 이었다. 지붕물매는 다소 낮게 잡혀 있다. 처마내밀기는 장연을 기준으로 2,500mm, 부연을 합쳐 3,130mm로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므로 처마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연의 기울기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 네 귀에는 활주를 세웠다. 이밖에 창호는 정면 가운데 칸에는 사분합 꽃살문을, 양 협칸에는 두 짝 빗살문을 각각 달았다.

3.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강진 백련사는 고려말 원묘국사 요세의 결사처로서 조선시대에도 많은 승려들이 수행했던 사찰이며,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1760년 화재 이후 중창 불사를 통해 1761년에 상량한 건물이다.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불전 건축의 장식화 경향을 대표하는 사례이다. 백련사 대웅보전의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 형식이다. 제공의 외부는 초제공에서부터 3제공까지 연화 무늬가 결합된 양서형, 4익공은 연봉이 달린 수서형, 5운공은 봉두이고, 내부는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연봉·연밥·연밥·연꽃을 조각했고 그 위로 봉두를 올렸다. 이러한 살미의 구성은 호남을 중심으로 형식화되어 점차 영남까지 확산되는데, 백련사 대웅보전의 건축연대는 그 중간에 있다. 또한, 불상 위에 단집을 설치하지 않고 우물천장을 이중으로 설치한 점, 실내를 채운 여러 마리의 용과 봉황 장식, 정면 기둥에 끼워진 청룡과 황룡 모습의 안초공, 살미를 길게 빼서 내주의 보아지로 사용하는 기법 등은 당시 건축양식의 시대적, 지역적 전개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둘째, 사찰 건축 관련 기록이 풍부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다. 백련사 대웅보전 건축과 관련된 기록은 「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가 대표적이다. 중수기에는 복구 사업의 정확한 일정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대시주질, 연화질, 야장, 목수질 등 직임과 인명을 정리해 두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찰 건축의 추진과정을 복원할 수 있으며, 담당자들 간의 인맥이나 영향 관계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도편수, 부편수, 승묵편수 등 불전 건축 목수들의 계보와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이다. 나아가 「만덕산백련사중창기」, 「만덕산백련사비」 등과 함께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만덕사지』가 전하고 있어서, 불교사의 전체적인 맥락 아래 사찰 또는 불전의 건축생산사를 고찰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셋째, 고려와 조선 불교사의 중요한 유적이다. 백련사는 고려시대에 원묘법사 요세의 백련결사가 개설되고 조선시대에 취여삼우의 법회가 열렸던 장소이고, 효령대군의 지원에 힘입어 중창했던 역사가 있다. 또한 승려들은 사대부에게 의탁하여 중창기와 사적기를 작성했고, 특히 다산 정약용은 백련사의 승려들과 협업하여 『만덕사지』를 편찬했다. 백련사 대웅보전의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의 명필 원교 이광사의 작업이며, 법당 실내에는 신라시대 명필 김생의 글씨가 집자되어 있다. 이처럼 백련사의 역사는 권력과 민중, 불교와 유교의 상호교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웅보전은 그 한 시기를 예증하는 건물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2. 02. 08	대상문화재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08월 30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가. 입지현황

강진군의 동·서·북쪽 삼면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지맥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높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남서쪽은 강진만을 끼고 있다. 강진만은 도암면과 대구면 사이에 위치한 만(灣)으로 강진군의 깊숙한 중앙부까지 만입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강진군의 형상은 ‘스’자이다. 북쪽 영암군과 경계에는 월출산(808m), 동쪽 장흥군과 경계에는 수인산(561m), 부용산(609m), 천태산(549m)이 있고 서쪽 해남군과 경계에는 서기산(515m), 주작산(438m), 만덕산(409m) 등이 있으며 중앙에는 수암산, 우두봉 등 소백산맥의 지맥이 뻗어 있다. 강진군의 최대 하천은 탐진강과 그 지류인 금강(錦江)이고 그 외에 강진천, 도암천, 칠량천, 대구천 등이 남쪽으로 흐른다.

강진 백련사(康津 白蓮寺)는 강진읍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강진만 서쪽의 만덕산(萬德山) 중턱에 자리한다. 만덕산은 강진읍과 도암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쪽 사면에는 기암괴석과 절벽이 많고 동백나무 등 활엽수가 많다. 특히 이 일대의 동백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1962. 12. 07)로 지정되어 있다. 인근에는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거주하던 다산초당(茶山草堂)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7권 <전라도 강진현(康津縣) 조(條)>에는 ‘(만덕산의) 앞 봉우리는 돌창고 같고(前峯如石廩), 뒷 봉우리는 연꽃(부용)같다(後峯如芙蓉)’라고 했던 고려 승려 혜일(慧日)의 시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동일 문헌에 ‘전라도 강진현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빼어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 한다’는 윤희(尹淮, 1380~1436)의 기록도 있다.

나. 역사문화환경

강진 백련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만덕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大興寺)의 말사이다. 조선시대 백련사가 소재한 강진현은 도강현(道康縣)과 탐진현(耽津縣)이 합쳐진 것으로 1417년(태종 17) 탐진현으로 읍치가 정해졌다가 1429년(세종 11)에 도강현 송계(松溪)로 옮겨졌다. 도강의 별호는 금릉(金陵)이고 탐진의 별호는 오산(鰲山)이다. 강진의 명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군명이 도강(道康)·도무(道武)·양무(陽武)·금릉(金陵)·탐진(耽津)·동음(冬音)·오산(鰲山) 등으로 불렸고 읍호를 금릉(金陵)이라고 하였다. 『강진현지도(康津縣地圖)』(1871)의 기록에는 다른 이름으로 금릉·오산(鰲山)이라고 하며 만덕산 아래 만덕사(萬德寺)로 표기되어 있고 읍치로부터 20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의 명칭은 만덕사 외에도 백련사(白蓮寺)로도 표기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의 『동여비고(東輿備攷)』에는 백련사(白蓮社)와 운제사(雲際寺)로 표기되어 있다. 이 사찰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덕사와 백련사의 명칭 외에도 연사(蓮社)가 있고 조선 후기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이 체류할 때 자주 쓰였던 만덕사(晩德寺)가 있다.

백련사의 기록 중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원묘국사 요세(圓妙國師 了世, 1163~1245)에 의한 중수기록이다. 요세는 천태종(天台宗)의 승려로 천태사상과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는 백련결사(白蓮結社)를 수행함으로써 고려 후기 불교계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그는 12세에 강양(江陽, 지금의 합천군) 천락사(天樂寺)에 출가하여 천태종을 알게 되었고 고봉사(高峯寺), 장연사(長淵寺), 공산회불갑(公山會佛岬), 화장암(華長庵)을 거친 후 1208년 월생산 낙사난고(樂師蘭苦)에 거처하였다.

요세는 백련사의 중수(重修)에도 관여하였는데, 1208년에 강진에 살고 있던 최표(崔彪)와 최홍(崔弘), 이인천(李仁闡)의 권유로 만덕산에 자리를 잡고 1211년(희종 7)에 그의 제자 원영(元瑩)·지담(之湛)·법안(法安) 등으로 하여금 건물 80칸을 짓고 감독하게 하였다. 1216년(고종 13) 가을에 준공이 되어 법회를 열고 낙성식을 하였고 목백(牧伯)이 지극한 정성으로 재물을 보시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 중 1221년에는 대방태수(帶方太守) 복장한(卜章漢)이 요세에게 자기 관내인 백련산(白蓮山)에 도량을 열어줄 것을 부탁하므로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한동안 머물다가 1223년 최표(崔彪)의 글을 받고 다시 돌아와 만덕사를 이끌었다. 요세는 만덕사로 돌아온 후 1232년 여름 4월 8일에 처음 보현도장(普賢道場)을 결성하고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수행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면서 천태삼매의(天台三昧儀)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1236년에는 제자 천책(天頤)이 지은 ‘백련사결사문(白蓮結社文)’을 공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백련결사(白蓮結社)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요세의 불교사상은 13세기 전란의 혼란상에 처해 있었던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정토신앙이 민중 속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기록 중 만덕사를 중창한 인물 가운데 당시의 고승이었던 행호(行乎)가 있으며 그와 관련되어 『만덕사지(萬德寺志)』 권5에는 절의 좌우에 ‘행호토성(行乎土城)’이 있고 그 유지(遺址)에 사는 승려가 말하기를 행호 당시 효령대군이 토성을 쌓고 앞에 문을 내어 통행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행호는 왜적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社)를 효령대군(孝寧大君)의 도움을 받아 1430년(세종 12)부터 중수하기 시작하여 1436년에 준공하였다. 이때의 중창에 참여한 인물은 장흥부의 전도관좌랑(前都官佐郎)

조수(曹隨)와 강진현의 안일호장(安逸戶長) 강습(姜濕)을 비롯한 인근 지방민들이 참여하였다고 전한다. 행호와의 인연으로 백련사에 일시 머물렀던 효령대군은 당시 고령이었으며 거쳐하던 전각은 동전(東殿)으로 『만덕사지』 5권에 의하면 행호가 중건한 건물 중 동서(東西)의 2원(二院) 가운데 동원(東院)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이 만덕사지를 교정하던 당시 기록에는 “효령대군이 머물러 쉬던 방(房)으로 지금의 오죽전(烏竹田)이라” 하였다.

백련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는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앞서 세종조의 행호 중건으로부터 그 이후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휴정(休靜 1520~1604)의 『청허당집(淸虛堂集)』 권65의 <만덕산백련사중창모연문(萬德山白蓮社重創募緣文)>을 통하여 임진왜란 전후에 한 차례의 중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전쟁의 피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 세월이 흘러 퇴락되어 승려들이 거쳐하기 어려워져 승려들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 중수하고자 한다는 언급만 수록되어 있다. 1641년에 조성된 삼세불 복장문서에 의하면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1598) 중 1597년 가을에 왜구가 불을 질러 존상(尊像)도 타버려서 다시 조성했다고 전한다.

전쟁 이후의 기록 중에는 만경루(萬景樓)의 중수에 관한 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의 <강진만덕산백련사만경루권화소(康津萬德山白蓮社萬景樓勸化疏)>가 『취미대사시집(翠微大師詩集)』의 <잡저(雜著)>에 수록되어 있다. 이의경(李毅敬, 1704~1778)의 『동강유고(桐岡遺稿)』 권2 <강진만덕산백련사중수기(康津萬德山白蓮寺重修記)>에 의하면 1681년에는 탑과 사적비(事蹟碑)가 세워졌으나 이후 다시 사찰이 폐허가 되었으니 1760년(영조 37년) 2월 1일의 화재로 불상만 겨우 보호할 수 있었고 대웅전(大雄殿), 십왕전(十王殿), 만경루(萬景樓)를 비롯한 수백 칸이 소진되었고 1761년 4월 8일에 왈찰(曰察) 등이 발원하고 대도감(大都監)을 맡고 원담윤철(圓潭允哲) 등이 재물을 모아 중건을 시작하여 9월에 상량하고 완성은 1762년(영조 38) 4월이었으며 당시 공이 있는 사람으로는 가선(嘉善) 지정(智正)과 주지 혜철봉관(惠哲鵬寬) 등 각 부분별 담당 내역이 산인(山人) 충신(聰信)이 쓴 중수기 현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의경은 부탁받은 상량문을 지으면서 백련사의 수려한 경관과 역사 등을 기록하였고 원묘국사의 개창으로부터 각 전각의 특징과 숙종조 조종저의 사적비 등 사찰의 내력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원묘대사가 세운 건물은 무릇 80여 채였으며, 천태대사의 법당과 행랑, 요사채는 그 규모가 웅장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원묘대사의 중건은 6년이 걸렸고 세종 때 행호대사의 중창은 7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1761년 복원한 한 채의 대웅전은 그 규모가 차이가 나지만 화재가 난지 1년이 지났을 뿐인데도 대웅전 한 채를 세웠으니, 만약 한결같은

정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매년 한 채를 복원하여 6~7년에 이르면, 원묘와 행호의 옛 전통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밝히고 있다.

2. 연혁·유래 및 특징

가.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건축연혁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내부에는 대웅보전의 중수 연혁을 알 수 있는 중수기 현판이 있다. 중수기 현판은 1765년 이의경(李毅敬)이 짓고 총신(聰信)이 글을 쓴 <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萬德山白蓮寺大法堂重修記)>의 축약본이다. <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萬德山白蓮寺大法堂重修記)>는 사찰 전체의 중수기에 해당하는 동 시기의 <강진만덕산백련사중수기(康津萬德山白蓮寺重修記)>에 비하여 대웅보전의 증창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는 백련사 대웅보전의 중건 배경, 시기, 참여자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수기의 내용은 1760년(영조 36) 2월에 큰불이 일어나 대부분 전각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중수를 하였다는 것과 대시주질(大施主秩)과 연화질, 야장(冶匠), 목수질(木手秩), 산중대덕질, 전행질(前行秩) 지전(持殿), 삼강(三綱), 서기(書記) 등의 직임이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각자 분담을 통해 여러 곳에서 시주를 모아 1761년 4월 8일 불사를 시작하여 1762년 4월 13일 대법당 등의 중건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이다. 야장(冶匠)은 김중기(金重己), 김덕빈(金德彬), 박준손(朴俊孫)이고 목수질(木手秩)은 도편수(都片手) 승(僧) 유신(維信), 부편수 이동빈(副片手 李東彬)이며 결묵편수(結墨片手, 재목을 다듬을 때 먹으로 치수를 표시하는 장인)는 승(僧) 대인(大仁) 등이 적혀있어 대웅보전을 건립할 때 참여한 기술인들의 직역과 인명, 승명을 알 수 있어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계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언급한 이의경(李毅敬)의 문집 『동강유고(桐岡遺稿)』(권2)의 <강진만덕산백련사중수기(康津萬德山白蓮寺重修記)>에서도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의경은 그간의 사찰 내력을 살펴보고자 사찰의 역사기록을 찾았으나 본디 백련사에는 사적(事蹟)이 없었다고 하였고 이후의 내용에서 만덕사의 자연환경과 김생의 글씨, 원묘국사의 중진탑(中眞塔), 부도(浮屠), 월대(月臺) 등을 언급하였고, 고려시대 최자(崔滋, 1188~1260)가 점찬(點竄)한 비(碑)는 없어지고 1681년(숙종 7)의 사적비가 있어서 처음 원묘국사가 터를 잡았을 때의 6년간 사실과 세종 때 왜구의 침탈로 폐쇄된 사찰을 행호대사가 복구한 7년간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 중건불사에서는 대웅전(大雄殿), 극락전(極樂殿), 나한전(羅漢殿 혹은 應眞堂), 십왕문(十王門), 진여문(眞如門) 등이 건립되었고 비전(碑殿, 明績殿), 판전(板殿, 八藏殿), 약사전(藥師殿), 관음전(觀音殿)은 1760년의 화재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1761년에 중건을 하지 못한 건물은 승당(僧堂), 선당(禪堂), 만경루(萬景樓) 뿐이라고 『만덕사지(萬德寺志)』 5권의 <한영안(翰英案)>에서 밝히고 있다.

1986년 2월 7일에 강진 백련사 대웅전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된 후,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전면 해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0년 대웅보전의 해체 보수공사 과정에서 종도리 하부의 상량문이 확인되었다. 종도리 하부를 장혀 면에 맞춰 치목된 하부에 ‘건륭 26년(乾隆 二十六年 辛巳…(과손) 上樑)’이라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1760년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보수는 2년간 지속되었는데, 1761년 상량 후 1762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건축 특징

(1) 평면(平面)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정면 11,300mm, 측면 8,700mm 면적 98.31㎡로 해남 미황사 대웅전,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부안 내소사 대웅전, 부안 개암사 대웅전, 울진 불영사 대웅전 등과 규모가 비슷하며, 특히 내소사, 개암사, 불영사 대웅전은 정면의 정칸이 헐칸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보인다. 측면의 주칸을 살펴보면 내소사 대웅보전의 경우 측면의 정칸이 퇴칸보다 크다는 점에서 백련사 대웅보전과 동일하다. 정칸은 퇴칸에 비해 1.5배 넓고 건물의 장단변비는 약 1:1.3으로 확인된다. 정면 11,300mm와 측면 8,700mm의 치수는 상호 정수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포의 공포 1세트의 모듈로 평면이 구성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둥은 총 14본으로 외부를 구성하는 평주가 12본, 내부의 고주가 2본이다. 평주의 직경은 우주 4본이 570mm 내외이고 평주는 480~520mm이며 내부의 고주는 420mm이다. 추녀의 하부에는 활주도 설치되었는데 직경이 약 210mm이다. 기둥은 모두 원주이고 활주의 하부에는 연잎이 새겨진 팔각형의 초석이 놓여있고 주좌의 상부에는 음각 문양이 있으나 희미하다. 평주의 초석이 모두 자연석인 것으로 미루어 고주 초석도 자연석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의 정면은 원래 막돌 허튼층쌓기였으나 다듬은 돌로 교체된 것이 확인된다. 대웅보전 기단의 우측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측의 건물 출입구 앞에는 판석이 놓여 있다.

우측의 판석은 매우 넓어 기단 내민 길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이다. 양 측면과 배면은 1단의 장대석으로 기단열이 갖추어져 있다.

(2) 가구(架構)

장진 백련사 대웅보전은 1고주 5량가인데, 내부의 고주는 배면 방향으로 약 250mm 이주(移柱) 후 예불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둥의 상부에는 용두(龍頭)가 있는 안초공이 결구되고 창방과 평방이 놓인다. 평방은 길이 방향의 두 부재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평방의 마구리 부분은 단일부재로 보인다. 목재의 뒤틀림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형 목재의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나주 불회사 대웅전 등에도 같은 기법이 적용되었다. 용두 장식 역시 남서해안의 불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백련사의 경우 조각이 세밀하지 않지만 용의 눈, 코, 갈기가 과장 표현되는 등 해학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 독특하다.

공포는 4제공에 외3출목, 내4출목으로 결구되어 대들보를 받는다. 내부의 고주 역시 대들보 하부에 결구되어 있는데, 좌측의 대들보는 전후면의 공포에 연결되는 통보이나, 우측의 대들보는 내부의 고주 상부에서 맞보 형태로 결구되어 있다. 내부 고주에 의해 형성된 불벽(佛壁)을 기준으로 후면의 공포에서 뺀어나온 4제공의 살미첨차는 기둥의 상부에 관통되어 대들보 하부를 따라 보아지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다.

대들보의 상부에는 도리방향의 층량과 연결된 동자주와 종보가 결구된다. 총 4분의 층량 중 공중에 노출되는 전면의 층량 2분에는 조각된 용두가 끼워져 있다. 후면의 2분은 불벽의 간섭 때문인지 층량의 마구리는 직절되어 단청으로 마감되었다. 우물천장은 2단의 높이로 가설되어 있는데, 낮은 단은 내목도리의 높이에서, 높은 단은 중도리의 높이에서 마감되었다. 도리는 바깥부터 외목도리, 주심도리, 내목도리, 중도리, 종도리 등 총 9본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중 단면이 가장 큰 것은 주심도리이다. 굴도리는 외목도리와 종도리 뿐이고, 주심도리, 내목도리, 중도리는 납도리의 단면 형태를 갖는다. 도리의 단면 크기는 보물로 지정된 타 대웅전들에 비해 작은 편이다. 종보의 상부에는 동자대공이 설치되고 종도리장여와 종도리가 결구되어 있다. 특이하게 동자대공의 하부와 종보의 상부가 만나는 면에는 동자대공 밑잡이가 결구되어 안정적인 모습이다. 처마는 겹처마, 연목은 장연과 단연이 사용되었다.

(3) 공포(栱包)

공포는 기둥 상부에 주상포, 기둥 사이 평방 위에 주간포가 있다. 주간포는 정면 정칸에 3구, 양 협칸에 각각 2구, 측면 정칸에 2구, 측면 퇴칸에 1구씩 배열되어 있다. 공포의 간격은 각 칸마다 차이가 있다. 정면 정칸의 주간포 3구는 간격이 1,175mm, 정면 협칸의 주간포

2구는 간격이 1,100mm이다. 측면 퇴칸은 추녀의 안정적인 설치를 위해 주간포의 위치가 조정된 까닭에 퇴칸의 중앙에 주간포가 있지 않고 우주(隅柱) 방향으로 옮겨졌다. 이로 인해 측면 정칸의 공포 간격은 1,267mm로 정면의 정칸보다 넓다.

조선후기 다포계 불전의 주칸길이를 설정 방식은 공포 간격의 배수로 설정하는 방법과 전체 길이를 설정하고 간포를 배열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백련사의 경우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장식화 경향의 진수를 보여주는 나주 불회사 대웅전은 공포 간격의 3배수로 정칸과 퇴칸이 설정되고 주칸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백련사 대웅보전은 불회사 대웅전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서는 전환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제공의 외부는 초제공부터 3제공까지 연화 무늬가 새겨진 양서형(仰舌形)이고, 4제공은 연봉이 있는 수서형(垂舌形), 5제공은 봉두형(鳳頭形)으로 장식되어 있다. 대웅보전의 살미첨차는 그 위치와 형태에 따라 초제공, 2제공, 3제공, 4익공, 5운공으로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살미첨차의 구성은 18세기 이후 공포형식으로 고착화되는 시대적 유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는 여러 단으로 구성된 살미첨차의 구성은 초제공부터 양서형으로 상부로 갈수록 연화, 연봉으로 초각되고, 살미의 상부에는 봉황머리의 모습으로 결합되는 양식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런 모습은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외에도 해남 미황사 대웅전(1754), 영광 불갑사 대웅전(1765), 경주 불국사 대웅전(1765),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1785) 등에서도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해남 미황사 대웅전은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과 7년의 간격으로 중수된 사실로 미루어 두 건물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국사와 기림사를 제외하면 '18세기 남서해안 지역 불전의 특징'이라 명명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지역 불전의 제공 조각 및 조형 수법은 유사하다.

(4) 장엄(莊嚴)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에는 화려한 장식 기법이 내외부에 적용되어 있다. 특히 장식화된 살미첨차의 형태가 주목되는데 미황사 및 불갑사와 유사하다. 아울러 18세기 불전의 살미가 연꽃과 연봉으로 초각되고 살미 윗부분의 한대가 내외부 모두 봉두조각으로 장엄되는 것이 일반적이데 백련사 대웅보전 역시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백련사 대웅보전은 불단 위에 단집이 조성되지 않은 바가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18세기 불전 중 단집이 조성되는 않은 곳은 통도사 대광명전을 비롯하여 7동에 달한다. 이 중 백련사 대웅보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은 불국사 대웅전과 기림사 대적광전이다. 3곳 불전 모두 호남 출신의 승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편년에 어

려움이 있지만 18세기 건축요소를 간직한 내소사 대웅보전 역시 내부에 단집이 조성되지 않았다. 3곳 불전 모두 우물천장이 층단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백련사 대웅보전만 불단 앞의 공간 위 천정을 하나의 구역으로 구획하여 그 둘레로 9마리의 용 조각을 배치하여 장엄하고 있다.

살미의 조각과 한대의 봉두 구성 등은 18세기 미황사 대웅전 및 불갑사 대웅전 등에 보이는 요소로, 호남의 백련사 대웅보전은 물론 영남의 불국사 대웅전과 기림사 대적광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호남지역의 화려한 불전의 장엄 요소가 호남을 넘어 영남지역에까지 확산될 만큼, 선호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백련사 대웅보전은 18세기 중반 이후, 당시 불교계에서 선호되었던 호남지역 불전 장엄형식을 전형적으로 보이는 불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웅보전(大雄寶殿)의 현판은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필체로 확인된다. 더 붙어 만경루(萬景樓) 현판의 필체도 그의 글씨라고 전한다. 원교의 필체는 해남 대흥사의 대웅보전, 침계루, 천불전, 해탈문, 해남 미황사의 대웅보전, 고창 선운사의 천왕문, 정와, 구례 천은사의 지리산 천은사, 극락보전, 명부전, 부안 내소사의 대웅보전 등 호남 지역 사찰 곳곳에 남아 있다.

3.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강진 백련사는 천태종 승려 요세가 주석 당시, 고려 후기 불교계에 큰 역할을 했던 곳이고 여러 명의 국사를 배출한 중요사찰이다. 더불어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은 1762년 중수된 불전으로 18세기 호남지역에 조성된 주불전의 형식적 요소와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이후 건축된 불전이 장식화되는 특징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1762년 중건된 백련사 대웅보전은 공포의 세부기법이 화려한 반면, 공포의 배열 등 구조적인 부분은 법식화되는 과정에서 전환기적인 특징을 보인다. 특히 주칸의 설정과 공포의 배열에 있어서 다소 이른 시기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기둥 상부의 용두형 안초공을 비롯하여 총량 마구리의 용두, 천장 상부의 용두형 장식, 공포의 화려한 조각 등은 매우 화려하고 사실적이나 용두의 표현은 해학적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에도 극락조, 사자상 등이 설치된 점 등은 18세기 이후 건축양식을 넘어서 장식의 극대화 경향을 살필 수 있고 더불어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둘째, 사찰 및 건물과 관련된 연혁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이 매우 상세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2010년 대웅보전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乾隆 26년 상량(1761년)’이라는 종도리 하부 곁상량 목서가 확인되어 편액의 내용과 일치하는 절대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수기 내용은 동강이의경의 문집 동강유고 중 『강진만덕산백련사중수기』에 실려 있고, 사찰의 기록인 『만덕사지』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건물 자체의 곁상량, 중수기 편액, 글쓴이의 문집 기록,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까지 모두 4종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건축생산사의 측면에서도 대웅보전의 중수 배경과 불사에 참여한 여러 인명이 나열되어 있어 향후 연구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셋째, 백련결사로서 불교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백련사의 업적이 크다는 점이다. 결사(結社)의 의미는 뜻을 같이하는 도반(道伴)들이 신앙에 대한 수행을 위하여 맺은 단체사원(寺院)은 사(寺)가 아닌 사(社)라고 불렀다. 당시 원묘법사 요세는 백련결사라고 하는 수행 공동체를 결성하였고, 절집 본래의 가풍을 회복하고 진작하고자 다양한 법회를 개최하였다. 원묘국사 요세는 백련결사문을 주도하여 신앙결사 운동의 이론적 측면을 완성함으로써 지눌의 수선결사와 함께 대표적인 신앙결사의 축을 이루었던 곳이 백련사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9.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대응전 건립 설계 재검토

가. 제안사항

‘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보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대응전 이전·확대를 위한 기본설계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보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대응전 이전·확대를 위한 기본설계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3.03.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82번지 덕산사 경내
 - 지정일 : 2016. 01. 07.
-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82번지 덕산사 경내
 - 사업예산
 - 2020년 : 50,000천원(국비 35,000천원, 지방비 15,000천원)
 - 2021년 : 200,000천원(국비 140,000천원, 지방비 6,000천원)
 - 2022년 : 263,000천원(국비 184,100천원, 지방비 78,900천원)
 - 사업지침
 - 2020년 :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에 따라 실측하고 우리청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 2021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원사 대응전 위치 고증을 위한 시굴 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 2022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전 복원을 설계하되, 기본설계(개략 배치, 평면, 입면도 등) 단계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석남암사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 설계내용 : 대응전 이전·확대 설계

- 대지면적 : 6,936m²
- 건축면적 : 85.5m²
- 연 면 적 : 85.5m²
- 구 조 : 한식 목구조
- 건물높이 : 10.06m
- 용 도 : 종교시설(사찰 : 대응전)
- 사업기간 : 2023. 04. 01. ~ 2023. 12. 31.

라. 현지조사의견(2023.04.14.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산청 덕산사 주불전지 발굴조사 결과, 삼층석탑의 원위치로 추정되는 적심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의 적심 그리고 조선시대 불전지 및 석축유구가 확인되었음.
- 신청된 주불전 계획안은 덕산사의 기존 건물 배치와 축을 맞추어 계획하였으나, 신청안과 같이 건립할 경우, 보물인 삼층석탑의 원위치 적심유구와 중심축이 어긋나고, 조선시대 건물지 유구의 훼손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불전의 위치는 삼층석탑의 적심유구와 건물지유구에 중심축을 맞추어 위치를 조정하고, 조선시대 건물지 유구를 보존하면서 석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원안가결 1명

10.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약사전) 건립 설계검토

가. 제안사항

‘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설계(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2길 10-13
 - 지정일 : 1963. 01. 21.
-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2길 10-13
 - 사업예산 : 80,000천원(국비 56,000천원, 지방비 24,000천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각 건립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되, 기본설계(개략 배치, 평면, 입면도 등) 단계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 주요내용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약사전) 건립 설계
 - 보호각(약사전)을 건립하고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을 이운·봉안하며 현재 해당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약사전의 현판을 사용함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및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의 현재 보호각의 명칭을 “약사전”에서 “미륵전”으로 변경

-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은 현재 전각 내에 그대로 위치하되, 방향을 남향으로 조정

○ 약사전 조성계획

- 규모 : 정면 3칸, 측면 3칸, 면적 90.64㎡(27.4평)
- 내부 전고 : 7m(기둥에서 종도리까지의 높이)
- 공포 : 다포계(외2, 내3출목), 교두형
- 구조 : 측면 2고주 5량가, 내부 무고주 5량가
- 지붕 : 팔작지붕

라. 자문의견(2020년 석불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

○ (중간보고) 2020.11.12. / 자문위원 : ○○○·○○○

- 좌상과 입상이 한 전각에 모셔진 것은 불교예법에 적절치 않고, 현 전각이 협소한 점을 감안할 때, 좌상을 이견하여 새로운 전각이 모시는 것이 타당
- 신축 위치는 용화사의 장기적인 배치계획을 고려할 때, 현 약사전 배면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음.

○ (최종보고) 2020.12.22. / 자문위원 : ○○○·○○○·○○○

- 약사전은 기존 불전과 사찰의 배치를 고려하여 기존 불전 뒤편에 배치하고, 평면은 불상의 시기를 고려하여 3칸×3칸의 규모로 설정하되, 가구와 공포는 고대건물의 양식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간소한 다포계 양식으로 구성토록 함이 좋겠음
- 현 건물을 미륵전으로 사용하고, 현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음. 다만, 향후에는 새로 건립하는 약사전 측면으로 미륵전을 배치하여 사찰의 배치를 완성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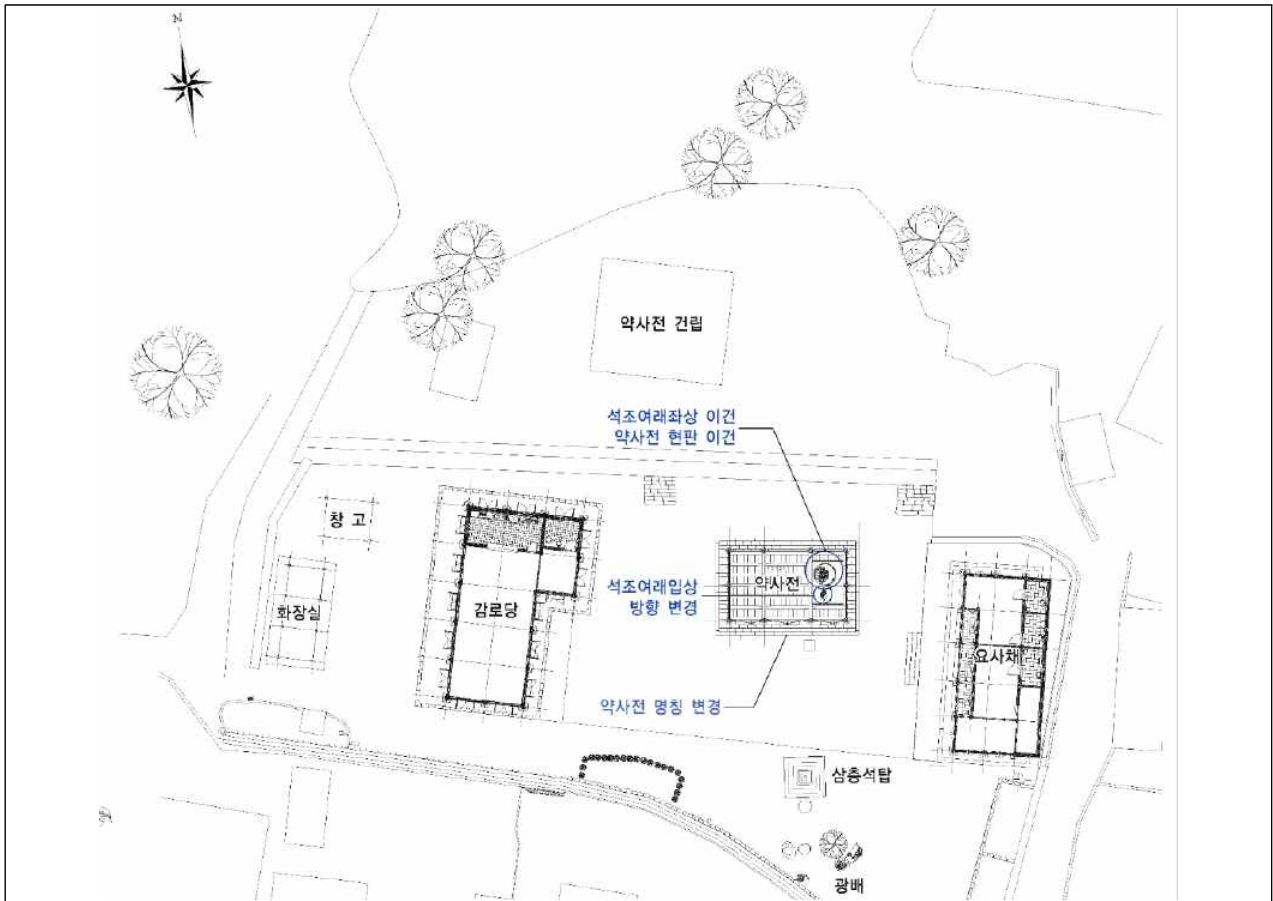
○ 조건부가결

- 건물의 배치, 양식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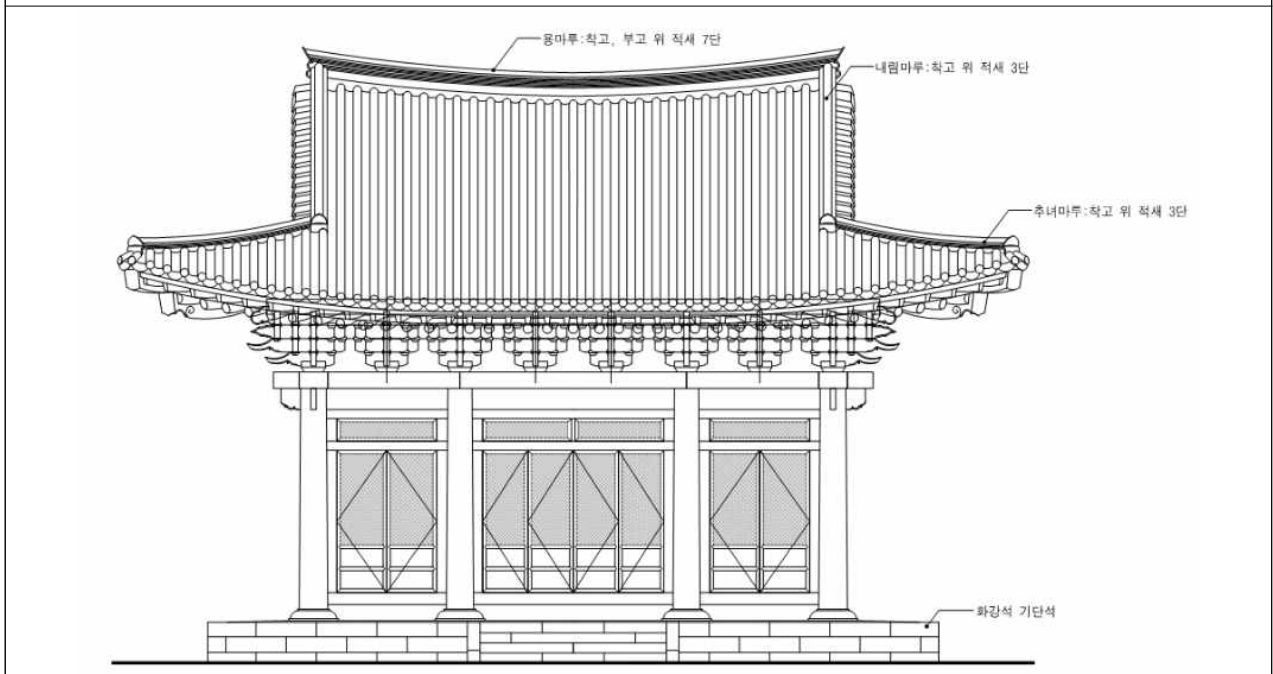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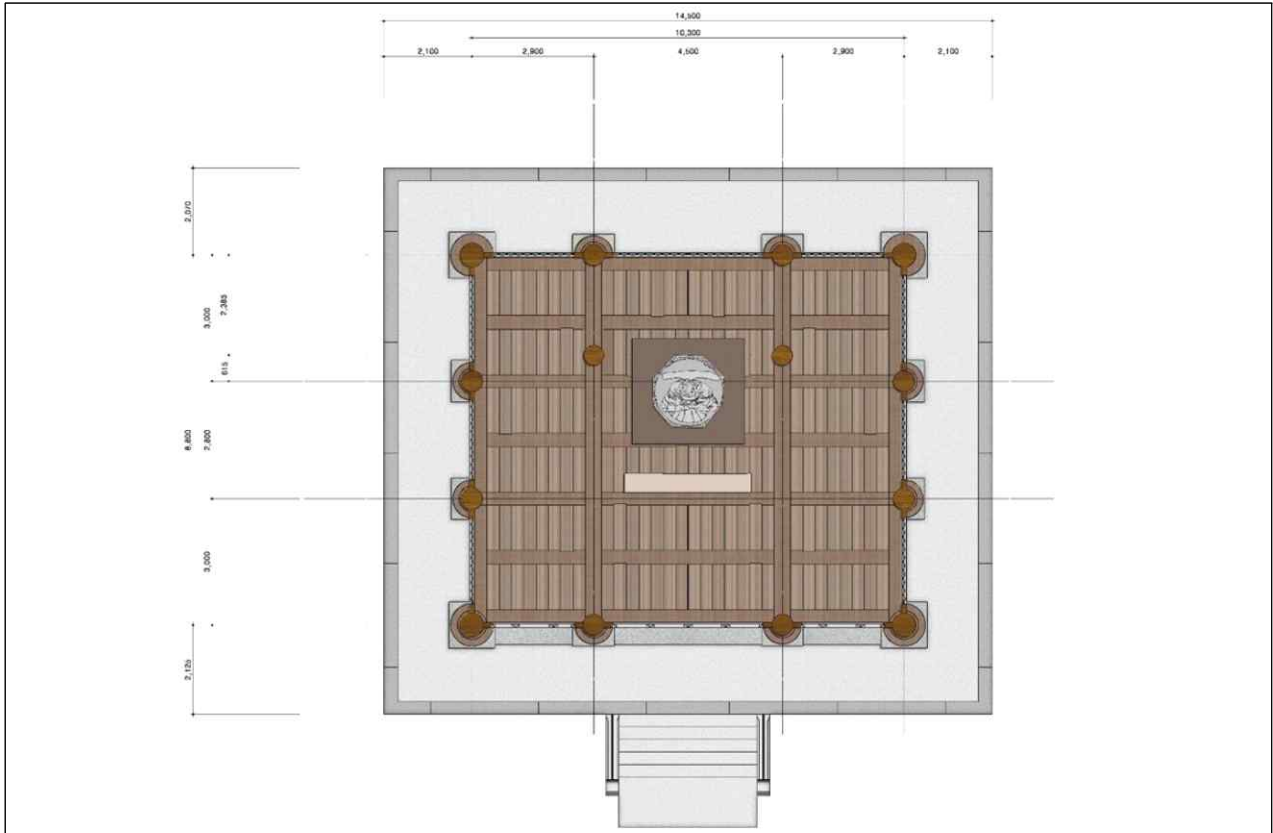
[붙임]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약사전) 건립 도면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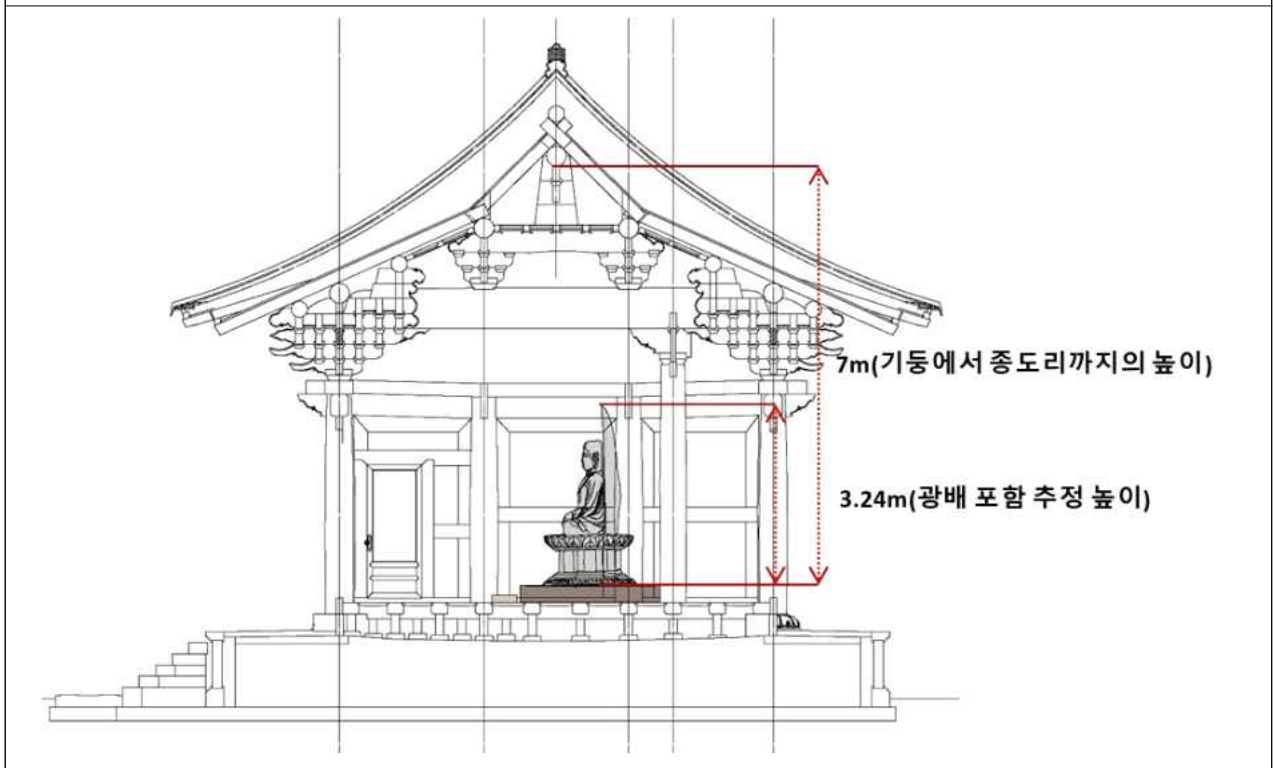
불전 조성계획(배치도)



입면도(정면)



평면도



종단면도

【보고사항】

안전번호 건축 2023-04-011

1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물 철거 등 허가신청 3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31건	원안가결 17건 조건부가결 9건 부결 4건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철거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33, 1033-3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150m 이격) - 경사지붕 15m 이하(3층 이하) ○ 내용 : 숙박시설 건축물(3동) 철거 - 모텔 1동 (연면적 863.76㎡, 3층) - 하우스 2동(각 건축면적 80㎡, 1층)	원안가결	'23.03.02
보물 상주향교 대성전·동무· 서무	경북 상주 (○○○)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 축조(안전경비원 초소) ○ 위치 : 상주시 신봉동 203-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6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 면적 : 24㎡(4.8mX5m) - 높이 : 4.5m	원안가결	'23.03.2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영천 송렬당	경북 영천 (○○○)	<input type="checkbox"/> 송렬당 주변정비공사 ○ 위치 : 영천시 과전동 61-3번지 외 9필지, 성내동 9-6번지 외 4필지 * 보호구역 내(문화재로부터 약 10m 이격) ○ 내용 - 주변 공터 부지정비 · 경계석 설치, 투수블록 체설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철거, 조경식재(영산홍, 철쭉, 맥문동, 잔디 등) - 주차장 부지 정비 · 투수콘크리트 포장, 주차라인 긋기, 주차 스토퍼 및 맨홀 설치, 가로등 설치 등 - 화장실 오수배관시설 보수 · 오수 맨홀 1개소, 오수배관 설치	원안가결	'23.03.20
보물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숲 가꾸기 사업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산 14-1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고사목 제거 및 숲아베기(37.98ha) - 숲아베기 : 37.98ha - 산물수집 : 33.55ha - 중하층가꾸기 : 9.67ha	조건부가결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	'23.03.20
보물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숲 가꾸기 사업 ○ 위치 : 구미시 황상동 산88-5, 임수동 산2-1, 산17번지 * 보호구역 내(문화재로부터 약 40m 이격) ○ 내용 : 재선충 감염목 훈증 및 파쇄 - 훈증 : 6본(황상동 산 88-5, 보호구역) - 인력수집 : 6본(임수동 산2-1, 산17번지, 4구역)	조건부가결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	'23.03.2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청도 (○○○)</p>	<p>□ 공사 관련 사무실, 합숙소 건립</p> <p>○ 위치 :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1333-98번지, 1333-44번지</p> <p>*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약 50m 이격)</p> <p>- 건축면적 330㎡ 초과</p> <p>○ 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2027.08월까지)</p> <table border="1" data-bbox="552 696 1114 92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용도</th> <th>연면적(㎡)</th> <th>최고높이</th> </tr> </thead> <tbody> <tr> <td>감독, 감리단 사무실</td> <td>202</td> <td rowspan="4">4.2m</td> </tr> <tr> <td>숙소</td> <td>239</td> </tr> <tr> <td>현장사무실</td> <td>282</td> </tr> <tr> <td>식당, 실험실 외</td> <td>241</td> </tr> <tr> <td>총 건축면적</td> <td>964</td> <td></td> </tr> </tbody> </table>	용도	연면적(㎡)	최고높이	감독, 감리단 사무실	202	4.2m	숙소	239	현장사무실	282	식당, 실험실 외	241	총 건축면적	964		<p style="text-align: center;">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용도	연면적(㎡)	최고높이																	
감독, 감리단 사무실	202	4.2m																	
숙소	239																		
현장사무실	282																		
식당, 실험실 외	241																		
총 건축면적	964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영천 (○○○)</p>	<p>□ 탐지 생태공원 조성사업</p> <p>○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156번지 외 11필지</p> <p>* 제1구역(보호구역 인접)</p> <p>- 최고높이 5m 이하(평지붕)</p> <p>○ 탐지 생태공원 조성사업</p> <p>- 흙쌓기/깎기(987㎡), 터파기(555㎡)</p> <p>- 잔토처리, 되메우기, 토사운반 등</p> <p>- 생태탐방로 사면보수(329㎡, H=1.2m 석축)</p> <p>- 원주목 경계설치(30m)</p> <p>- 태양광상부캡설치(테크 야간조명, 373EA)</p> <p>- 입구게이트 3개소 설치</p> <p>- 생태공원 안내 SIGN시설 2개소 설치</p> <p>- 생태관찰시설 1개소, 조명글자간판 2개소 설치</p> <p>- 안전로프 펜스 16경간, 안전난간 12경간 설치</p> <p>- 휴게시설물 2EA, 인명구조함 4EA, 위험 주의 안내판 4EA</p> <p>- 관목 500주, 넝쿨류 160주</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공주 계룡산 중약단	충남 공주 (○○○)	<input type="checkbox"/> 신원사 휴휴당(공양간) 건립, 화장실 철거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 * 보호구역 내 ○ 내용 : 공양간 건립, 화장실 철거 - 건축면적 : 85.05㎡ - 층수/높이 : 1층/ 7m - 용도 : 공양간 - 구조 : 한식목구조 - 지붕 : 맞배지붕(한식 중와) 마감 * '22년 제10차 건축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2.10.22.)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 '22년 제11차 건축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2.11.17.) :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 철거사항 : 화장실1동(23.1㎡)	원안가결	'23.04.07
보물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 (○○○)	<input type="checkbox"/> 공유플랫폼 시설 외부마당 정비 ○ 위치 : 영주시 중앙로7(가흥동) * 보호구역 내, 제1구역 ○ 공유플랫폼 시설 외부마당 정비 (놀이터, 정원, 잔디마당 등) - 대지면적 : 5,048.3㎡ - 파고라 제거(2개소) 및 설치(1개소) - 등 의자 제거(10개소) 및 설치(10개소) - 그늘막설치(7개소) - 수도시설 1개소 철거 - 아스콘 철거(550㎡) 및 포장(700㎡) - 인조화강블록 설치(1,142㎡) - 포장구분, 녹지구분 경계석 설치 - 기타 수목식재 등	원안가결	'23.04.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국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영양 (○○○)</p>	<p>□ 주거취약지구 개선사업(담장설치)</p> <p>○ 위치 : 영양군 임압면 봉감길 65-13</p> <p>* 제1구역(보호구역 인접, 문화재에서 약 100m 이격)</p> <p>- 개별심의</p> <p>○ 주거지역 담장설치 사업</p> <p>- 한식기와, 흑색 전돌, 회백색 사고석 담장(높이 1.6m) 6개소 설치</p> <p>* 봉감길 65-3(길이 23m)</p> <p>* 봉감길 65-13(길이 20m)</p> <p>* 봉감길 84(길이 7m)</p> <p>* 봉감길 86(길이 5m)</p> <p>* 봉감길 88(길이 15m)</p> <p>* 봉감길 90(길이 7m)</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김천 (○○○)</p>	<p>□ 직지사 경내 수목정비(제거)</p> <p>○ 위치 :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p> <p>* 보호구역 내, 제1구역</p> <p>○ 수목제거(상수리나무 24주)</p> <p>- 수목 벌목(24주, 직경 21cm~65cm)</p> <p>- 수목 그루터기 근사미(제초제) 주입 및 고사</p> <p>- 고사된 뿌리제거</p>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안전대책 수립 후 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산 (○○○)</p>	<p>□ 미륵전 진입로(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p> <p>○ 위치 :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9번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50m 이격)</p> <p>- 개별심의</p> <p>○ 내용 : 미륵전 진입로 및 주변정비</p> <p>- 사업예산 : 700,000천원</p> <p>- 화강석, 마름석 진입로 설치</p> <p>- 목재 안전난간 설치</p> <p>- 석축 및 배수로 설치</p> <p>- 하천 흡관(D800)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관계전문 가 자문을 받아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산 (○○○)</p>	<p>□ 홍주암 진입로(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p> <p>○ 위치 :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7번지 외 2필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40m 이격)</p> <p>- 개별심의</p> <p>○ 내용 : 홍주암 진입로 및 주변정비</p> <p>- 사업예산 : 500,000천원</p> <p>- 기존계단 해체, 화강석, 마름석 진입로 설치</p> <p>- 철제난간 해체 및 목재난간 설치</p> <p>- 자연석 배수로 해체설치, 집수정 설치</p> <p>- 석축 해체 및 설치</p> <p>- 연산홍 식재 등</p>	<p>조건부가결 (- 석축 높이 축소 - 기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초 조정 - 위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보완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p style="text-align: center;">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주 (○○○)</p>	<p>□ 재해복구사업</p> <p>○ 위치 : 경주시 진현동 산9-1 등</p> <p>* 보호구역 내, 제1구역</p> <p>○ 내용 : 재해복구사업</p> <p>- 배수로 확장 L=450m,</p> <p>- 배수관 L=128m, 집수정 17개소 설치</p> <p>- 보도 L=38m, 석축 L=226m 설치,복구</p> <p>- 교량 L=11m</p> <p>- 낙석방지책 L=41m 낙석방지망 A=643㎡ 설치</p> <p>- 자연석 쌓기 L=16m, 목재난간 L=27m 설치</p> <p>- 돌계단 L=80m, 돌배수로 L=22m 설치</p> <p>- 식생매트 L=300m 설치</p> <p>- 스틸그레이팅 2개소, 링네트 2개소 설치</p>	<p>조건부가결 (교량의 경우 기존 형태 및 규모의 범위 내에서 보수)</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여주 (○○○)</p>	<p>□ 여주 천송~신남간 도로확포장공사(변경허가)</p> <p>○ 위치 : 여주시 천송동 산 161번지 1호 일원</p> <p>*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440m 이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도로 신설, 확장 개별심의 <p>* '20년 8월 자체검토 회의결과('20.8.11.) : 원안가결</p> <p>○ 사업내용 : 여주 천송~신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허가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량 : L=2.48km, 차로폭(2→4차선) - 보존지역 내 사업량 : L=0.22km, B=25.5km(4차로) - 회전교차로 2개소(단구형 1개소, 쌍구형 1개소) - 변경사항 : 방음벽 1개소 설치 · 설치높이 5m, 설치구간 40m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곡성 (○○○)</p>	<p>□ 봉서암 휴휴당 건립</p> <p>○ 위치 :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번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0m 이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의 <p>○ 사업내용 : 봉서암 휴휴당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50백만원(지방비) - 건축면적 : 51.84㎡ - 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 - 양식 : 초익공, 자연석 초벌대 기단 - 지붕 : 겹처마 팔작지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기존 허가현황('23.02.17.) : 조건부허가(천왕문 성격으로 건립)</p> <p>○ 금강문 건립(보호구역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25.74㎡ - 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 - 구조 : 5량가, 익공식, 맞배지붕 </div>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영암 성풍사지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영암 (○○○)</p>	<p>□ 영암 방아소하천 정비사업</p> <p>○ 위치 :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533번지 1호 일원</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0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방아소하천 정비사업</p> <p>- 사업목적 : 홍수대비 및 지역주민 친수 공간 확보</p> <p>- 사업구간 : 보존지역 내 237m 구간</p> <p>- 제방 및 호안</p> <p>· 제방보강 : 267m</p> <p>· 고수호안 267m, 식생옹벽블록, 전석쌓기</p> <p>· 저수호안 71m, 전석쌓기</p> <p>- 산책로 : 사리부설 90m</p> <p>- 구조물공</p> <p>· 교량재가설 : 1개소(방아제7교)</p> <p>· 배수시설물 : 배수통관 1개소</p> <p>- 친수공간 조성공</p> <p>· 전석깔기 1개소 : 130㎡</p> <p>· 징검다리 설치 1개소 : 6.7m</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 강화 (○○○)</p>	<p>□ 단독주택 2동 건립</p> <p>○ 위치 :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284-102번지 외 2필지</p> <p>* 제3구역(문화재에서 242m 이격)</p> <p>-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p> <p>- 옹벽, 석축 3m 이상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단독주택 2동 건립</p> <p>- 신청면적 : 902㎡</p> <p>- 건축면적 : 144.54㎡</p> <p>- 연면적 : 245.88㎡</p> <p>- 구조 : 지상2층 2개동, 철근콘크리트</p> <p>- 최고높이 : 7.5m</p> <p>- 옹벽높이 : 1.7~4.3m</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 강화 (○○○)</p>	<p>□ 단독주택 6동 건립 및 진입로 조성(변경허가)</p> <p>○ 위치 :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284-99번지 외 3필지</p> <p>* 제3구역(문화재에서 235m 이격)</p> <p>-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p> <p>- 옹벽, 석축 3m 이상 개별심의</p> <p>* '22년 제5차 건축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2.5.19.)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p> <p>* '22년 제6차 건축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2.6.16.) : 원안가결</p> <p>○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조성 변경허가</p> <table border="1" data-bbox="552 976 1120 1496"> <thead> <tr> <th>구분</th> <th>원안가결 ('22.6.16.)</th> <th>금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신청면적</td> <td>3,215㎡</td> <td>4,053㎡</td> <td>증838㎡</td> </tr> <tr> <td>건축면적</td> <td>397.98㎡</td> <td>505.89㎡</td> <td>증107.91㎡</td> </tr> <tr> <td>연면적</td> <td>397.98㎡</td> <td>860.58㎡</td> <td>증462.6㎡</td> </tr> <tr> <td>최고높이</td> <td>5.6m</td> <td>7.5m</td> <td>증1.9m</td> </tr> <tr> <td>규모</td> <td>지상1층</td> <td>지상2층</td> <td>증1층</td> </tr> <tr> <td>건물동수</td> <td>6동</td> <td>7동</td> <td>증1동</td> </tr> <tr> <td>구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d>-</td> </tr> <tr> <td>옹벽 석축</td> <td>4.5m 4m</td> <td>4.5m 4m</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원안가결 ('22.6.16.)	금회	비고	신청면적	3,215㎡	4,053㎡	증838㎡	건축면적	397.98㎡	505.89㎡	증107.91㎡	연면적	397.98㎡	860.58㎡	증462.6㎡	최고높이	5.6m	7.5m	증1.9m	규모	지상1층	지상2층	증1층	건물동수	6동	7동	증1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옹벽 석축	4.5m 4m	4.5m 4m	-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구분	원안가결 ('22.6.16.)	금회	비고																																					
신청면적	3,215㎡	4,053㎡	증838㎡																																					
건축면적	397.98㎡	505.89㎡	증107.91㎡																																					
연면적	397.98㎡	860.58㎡	증462.6㎡																																					
최고높이	5.6m	7.5m	증1.9m																																					
규모	지상1층	지상2층	증1층																																					
건물동수	6동	7동	증1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옹벽 석축	4.5m 4m	4.5m 4m	-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여주 창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여주 (○○○)</p>	<p>□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교회 부지증설)</p> <p>○ 위치 : 여주시 상동 75번지 20호 외 1필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78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종교집회시설 부지조성(교회 부지증설)</p> <p>- 조성면적 : 763㎡</p> <p>- 형질변경 : 임야→대지</p> <p>- 절토 : 1.8m</p> <p>- 자연석 쌓기 : 1.5m 미만</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고흥 능가사 대웅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고흥 (○○○)</p>	<p>□ 산림 간벌 및 오솔길 조성</p> <p>○ 위치 :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산 130번지 4호 * 제1구역(문화재에서 40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능가사 주변 산림 간벌 및 오솔길 조성</p> <p>- 신청구간 : 1,160m</p> <p>- 숲길 개설 : 폭 1.8m</p> <p>- 보행매트 설치 : 폭 1.5m, 두께 30mm</p> <p>- 절성토 : m당 0.66m²</p> <p>- 벌목 및 벌개제근 : m당 3.8m²</p>	<p style="text-align: center;">부결 (자료보완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 부안 (○○○)</p>	<p>□ 템플스테이 체험상담관 및 담장 건립</p> <p>○ 위치 :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7번지 * 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112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체험상담관 및 담장 건립</p> <p>- 체험상담관 건립</p> <p>· 건축면적 및 연면적 : 64.80m²</p> <p>· 규모 : 지상1층, 정면 5칸, 측면 2칸</p> <p>· 최고높이 : 5.8m</p> <p>- 담장 설치 : 71.6m, 높이 1.5m, 한식와편담당</p> <p>·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8.45m</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기존 허가현황(‘19.09.19.) : 조건부가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지형 변경 최소화, 배치 조정 후 시행)</p> <p>○ 템플스테이 건립(보호구역 내)</p> <p>- 건축면적 : 94.5m²</p> <p>- 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p> <p>- 구조 : 5량가, 팔작지붕</p> <p>- 높이 : 6.95m</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 익산 (○○○)</p>	<p>□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p> <p>○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 92번지</p> <p>*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258m 이격)</p> <p>- 개별심의(보물 기준 심의)</p> <p>○ 사업내용 :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p> <p>- 부지면적 : 3,250㎡</p> <p>- 건축면적 및 연면적 : 399.96㎡</p> <p>- 규모 : 2개동, 일반철골조</p> <p>- 절토 : 0.79~4.13m</p> <p>- 최고높이 : 6.39m</p> <p>- 식재 및 벌채 : 측백나무 31주 식재, 기존 임목 벌채</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p style="text-align: center;">국보 구례 연곡사 북 승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구례 (○○○)</p>	<p>□ 상수도 관로 매설 및 가압장 신설(변경허가)</p> <p>○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17번지 연곡사</p> <p>* 제1구역 일원</p> <p>- 개별심의</p> <p>* '22년 제7차 자체검토 회의결과('22.7.11.) : 원안가결</p> <p>○ 사업내용</p> <p>- 가압장 : 폭 4m, 길이 5m, 높이 2m</p> <p>· 변경사항 : 위치변경</p> <p>- 물탱크</p> <p>· 당초 : 지중설치, 5.22m×2.79m</p> <p>· 변경 : 지상설치, 5.20m×3.72m</p> <p>- 상수관로</p> <p>· 당초 : 447m</p> <p>· 변경 : 287m</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고창 (○○○)</p>	<p>□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p> <p>○ 위치 :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93번지 3호</p> <p>* 제1구역(문화재에서 80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대웅전 주변정비사업</p> <p>- 사업비 : 200백만원(지방비)</p> <p>- 목교설치 : 1개소, 4.4m×1.8m</p> <p>- 1단 거친돌 석축 : 37m, 높이 0.9m</p> <p>- 2단 거친돌 석축 : 40m, 높이 0.7m</p> <p>- 경화마사토 포장 : 180㎡, 폭4m</p> <p>- 기존석교 정비 : 1개소, 3m×2.8m</p> <p>- 거친돌 계단 :: 1개소, 8.9m×2.1m</p>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석축정비 계획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의 검토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 고양 (○○○)</p>	<p>□ 공덕비 건립</p> <p>○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5번지 태고사</p> <p>* 제1구역(문화재에서 25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종단 인수불사에 동참한 태고종도와 불자의 공덕비 건립</p> <p>- 규모 : 넓이 2.3m, 높이 4.5m</p>	<p style="text-align: center;">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p>	<p style="text-align: center;">‘23.04.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보성 (○○○)</p>	<p>□ 성적당 건립</p> <p>○ 위치 : 보성군 울어면 유신리 533번지 1호 * 제1구역(문화재에서 79m 이격)</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성적당 건립</p> <p>- 사업비 : 600백만원(지방비)</p> <p>- 건축면적 : 152.70㎡</p> <p>- 규모 : 정면 5칸, 측면 4칸</p> <p>- 이격거리 : 79m</p> <p>- 최고높이 : 9m</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현지조사의견(‘23.04.11,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p> <p>- 신청부지는 마애불의 전방부에 해당되는 위치로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p>	<p style="text-align: center;">‘23.04.12</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 울주 (○○○)</p>	<p>□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p> <p>○ 위치 : 울주군 청량읍 울리 1209-1, 1209-2번지</p> <p>*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116m 내외)</p> <p>- 개별심의</p> <p>○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변경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변경후</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98.70㎡</td> <td style="text-align: center;">99.69㎡</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 0.99㎡</td> </tr> <tr> <td>연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98.70㎡</td> <td style="text-align: center;">99.69㎡</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 0.99㎡</td> </tr> <tr> <td>높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5.80m</td> <td style="text-align: center;">5.80m</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층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1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지붕</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식기와</td> <td style="text-align: center;">스페니쉬기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 ‘23년 1월 자체회의 1차 : 원안가결</p>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98.70㎡	99.69㎡	증 0.99㎡	연면적	98.70㎡	99.69㎡	증 0.99㎡	높이	5.80m	5.80m	-	층수	1층	1층	-	지붕	한식기와	스페니쉬기와	-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03.20</p>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건축면적	98.70㎡	99.69㎡	증 0.99㎡																									
연면적	98.70㎡	99.69㎡	증 0.99㎡																									
높이	5.80m	5.80m	-																									
층수	1층	1층	-																									
지붕	한식기와	스페니쉬기와	-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창녕 영산 만년교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sk텔레콤 중계기 설치(변경허가) ○ 위치 : 창녕군 영산면 동리 271-11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40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중계기 설치 - 사업면적 : 1.0㎡ / 전주 1본 - 통신장비 · 이동 전화 송신기 3식 · 정류기 1식 · 안테나 3기 - 높 이 : 13.5m ○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 동리 440-4번지 → 동리 271-11번지	원안가결	'23.04.07
보물 강릉 경포대	강원 강릉 (○○○)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해설사집 신설 ○ 위치 : 강릉시 저동 124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126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문화관광해설사집 신축 - 연 면 적 : 27㎡ - 최고높이 : 3.1m	조건부가결 (적정위치 재검토 후 시행)	'23.04.07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강원 강릉 (○○○)	<input type="checkbox"/> 문화관광해설사집 신설 ○ 위치 : 강릉시 교동 234-2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30m 이격) - 개별검토 ○ 사업내용 : 문화관광해설사집 신축 - 연 면 적 : 12㎡ - 최고높이 : 3.1m	조건부가결 (적정위치 재검토 후 시행)	'23.04.07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